朝鮮日報
夕刊 十六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金鶴香油

獨、佛間不可侵協定
原則的意見一致
佛國은獨의東歐進出默認
獨은西部國境不可侵保障

【巴里十五日發同盟】佛國政府는 문헨四國協定成立에 伴하야 歐洲政局의 新展開에 對하야 對獨關係調整에 腐心하고 잇든바 巴里政界一部에서는 獨佛兩國政府間에 獨佛不可侵協定締結에 關하야 原則的으로 意見이一致되엿다는 觀測이有力히 傳하고 잇다 AP巴里支局은 右不可侵協定內容에 對하야 十五日如左한 觀測을나리고잇다

最近獨佛兩國間에意見이一致되엿다는 獨佛不可侵協定은 獨逸이 西部獨佛國境의 不可侵을 保障하는 代償으로 佛國이 獨逸의 東歐進出을默許한다는 諒解를基礎로한것이라하야 消息通은 不可侵協定內容에關하야如左한 觀測을하고잇다

一、今後獨佛間에 如何한重大問題가 發生한境遇 佛國은 武力을使用하지안코圓卓會議로써 獨逸과의抗爭解決에 努力할것을確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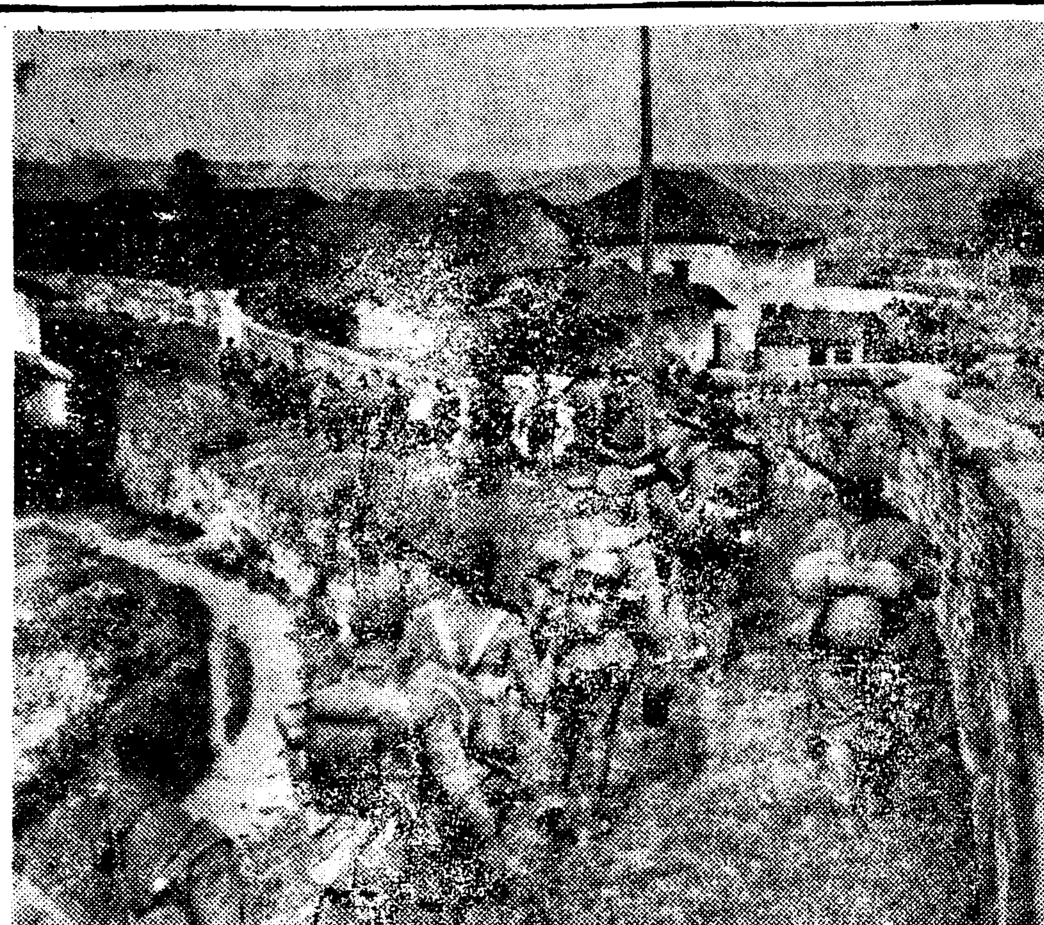
一、獨逸은 佛國에對하야 武力乃至宣傳에依한 脅威를주지안는 代償으로서 東歐洲進出의理由를獲得함 如斯히 獨佛兩國間의 多年에 亘한對立反目關係를 淸算하고 不可侵協定의締結을 決意하게된것은 히틀러總統이 카이젤二世의 西部侵攻策을 放棄하고 오로지 東歐洲進出만에 專念하게된때문이라고하며 一方佛國도 大戰後二十年에 亘하야 强行하여온 對獨包圍策을 放棄하게되엿다한다 (寫眞은 히獨總統(上) 달佛首相(下))

佛外相、獨外務次官
兩國國交關係調整次協議

【巴里十五日發同盟】봉네佛國相은 駐佛獨逸大使館書記官 폰라-트氏의 葬儀에 參列코저 巴里來訪한 와이제카獨逸外務次官과의 間에 獨佛國交關係의 調整에 關하야 協議를하고잇섯는데 AP通信社 巴里支局의報道에依하면 十四日夜 長時間에 亘하야 會談한結果 兩者間에 原則的意見의 一致를 보게되엿다고한다 그리고 新駐獨佛國大使쿠-론들氏는 十六日의 赴任豫定을取消하고 兩三日出發을 延期中이다 이는 봉네外相의訓令完成을기다리기爲함으로 쿠-론들氏는 伯林着任後 同訓令에立脚하야 獨佛不侵略協定調印에 當할方針이라한다 또新協定은 國境問題에 關하야 特別히兩國間에 何等紛爭이存在하지안는다는것을 闡明한것이라고解釋된다

米駐獨大使召喚은 / 猶太人排斥에基因

【華盛頓十四日同盟特派員發】米國政府가 十四日駐獨大使에 歸國을命한理由는 猶太人問題에對한抗議的措置로 解釋되는데 米國이 特히 猶太人問題에對하야 무슨緣由로 他國에率先하야 그러한行動을 取한 것인가는자못 疑問이다 昨今米國의對獨感情이 相當 惡化해진것은 疑心할수업는바로 十四日午後獨逸에對하야 늘好感을 가지지못한 익쓰內務長官이 猶太人問題로 루-즈벨트大統領과 會談한것도 注目을흘렷다 그러나 只今形勢로서는 政府로서 제스추어를 보인程度에 不過하고 國交斷絶가튼것은 全然問題되여잇지아라



通城을攻略한後 繼續進擊하는 〇〇部隊(中支戰線)

海軍異動

【東京電話同盟】海軍側發表(十五日午後六時十五分發表)今日如左한補職命令이잇섯다

海軍中將 花島孝一
補海軍航空廠長
海軍少將 相馬六郎
補佐世保海軍工廠造兵部長
海軍軍醫少將 京坊(?)
補橫須賀海軍病院第一部長
同 若生良穗
補海軍軍醫學校敎頭兼敎官

初代駐滿武官에 / 代谷海軍大佐任命

【新京十五日發同盟】駐滿海軍武官府의開設에伴하야 初代駐在武官에 海軍部參謀長 代谷大佐가 任命되엿다 그리고 哈爾濱臨時防備司令森大佐는 來月中旬 部隊와함께 歸還하야 某要職에就任할터이다

敕任官任用道擴張
文官身分保障令撤廢
官吏制度改革에關한三相會議內容

【東京電話同盟】文官制度改革에 關한 鹽野、末次、木戶三相會議는 十五日午後二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되고 船田法制局長官도 列席하야 前回에이어 審議한結果 改革의中核이될 重要點에 關하야 意見의一致를 보고 三相會議로서는 一段落을告하엿스므로 十八日의 閣議에 鹽野法相으로부터 三相會議의 審議經過를 報告하야 各閣僚의意見을 드러본다음 法制局에 回附하야 成文化시키기로 方針을決定하고同五十分 散會하엿다 三相會議에서決定된改正要點은 左와如하다

▲高等試驗令改正要綱
高等試驗을 行政科試驗과 司法科試驗의二種으로分함

行政科試驗
一、必須科目
憲法 行政法 財政學 經濟學
一、選擇科目
國際法 國史 哲學槪論 外國語 外二科目의 六科目中三科目의程度를選擇케함
一、口述試驗
行政法及 國際法中에서一項目을選擇케함
一、人物考査
時事問題其他를通한 口頭試驗에依하야 人物을考査함(이試驗委員은 各省次官으로함)

司法科試驗
一、必須科目
憲法 民法 商法 刑法
一、選擇科目
民事訴訟法 刑事訴訟法 經濟學 哲學槪論 國史 以上中三科目程度를選擇케함
一、口述試驗
民事法 刑事法中에서 一科目을選擇케함
一、人物考査
行政科와同一함

▲敕任文官任用令改正要綱
一、產業 金融 貿易 交通等에 關하야 學識又는 經驗이잇는者로 敕任文官銓衡委員會의 銓衡을經하야 敕任文官에 任用할道를開拓함
一、其他의官을 指定하야 敕任文官任用의道를 開拓함(指定官未定)

▲文官分限令改正要綱
文官에對한 身分保障令은全部此를撤廢함

▲內務省總務局(假稱)官制案
一、行政各省長官에關한 人事의交流를圓滑케하저 爲하야 內務省에 總務局을 設置하고 人事를 管掌케함
一、總務局에 人事委員會를 設置하고 內務 農林 商工 文部 拓務其他 各省次官으로써 委員에充當함

全米大陸防衛目標
空軍大擴張力說
루大統領重要聲明發表

【華盛頓十五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十五日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昨十四日의國防會議의 討議內容에 言及하야 空軍强化의 必要를 力說하엿고 同時에 國防은 米國大陸을對象으로한다는 旨의 重要聲明을 發表하엿다 大統領의 談話內容은 다음과갓다

昨日 陸海軍首腦部와 加奈陀를 包含한 大陸全體의 防衛를 確保하기爲한 第一의 手段으로서 空軍勢力을 增加할問題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한바 同國防問題를討議함에當하야 米國만을 目標로 하지안코 米州全體를 對象으로하야 硏究한세음이다 新空軍擴充計畫의 內容과 費用에 關하여서는 今日言明할바 아니나 此數年間 世界情勢의 變化와 科學의 進步를 考慮하야 米國及南北米洲大陸의國防方針에 關하여서는 全般的으로 再檢討를 加하지안흐면 안될것은 明白하다 空軍의發達에依하야 米洲大陸은 五十年前에比하면 훨신外敵의 攻擊을 밧기쉬운 地位에이게되엿다

다시 新聞記者團으로부터 中立法修正問題에關하야 質問한데 對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다음과가티 答하엿다

中立法의 修正에 關한것은 昨日의 會議에서 全然問題되지 안헛다 또 太平、大西兩洋에 別個의 艦隊를 編成하는案에 關하여서도 討議하지안헛다 (寫眞은 루大統領)

英米兩國에收容 / 猶太人救濟策으로

【倫敦十五日發同盟】英米兩國은 獨逸政府의 猶太人彈壓에 對하야 重大關心을 가지고 進展을注視하고잇는바 十五日AP倫敦支局이 英國官邊의 見解이라하야 報道하는바에依하면 英米兩國은猶太人救濟策으로서 獨逸로부터追放된猶太人을 極力英帝國及南北米洲에 收容하기로 意見이一致하엿다고한다 또同案은 駐英米國大使 케네디-氏의 發意에依한것으로 케네디-氏는 同案에 立脚하야 챔벌린首相 할리팍스外相 맥도날드自治領相等과 協議한結果 英國의同意를엇게된것으로觀測되며 米國에서는 同問題에關하야 英國側이率先唱導하기를 希望하고 極力英國에對하야 策動하고잇는模樣이다

匈內閣改組斷行

【부다페스트十五日發同盟】匈牙利首相 임레디氏는 過般來 內閣改造를 企圖하고잇던바 十五日 一旦總辭職을 斷行後 卽日新內閣의 組織을 完了하엿다 新內閣이라고는하지만 現內閣改組의 域을脫하지안코 大體舊內閣의人員을 中心으로하야 一、二、三閣僚의 更迭을行한데 不過한다

政友會全常議員
總裁設置促進을要望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 工業常議員會長은 十五日午後六時 芝紅葉館에서 全常議員 二十一名을 招待、晩餐을가치하면서 總裁設置問題에關하야 協議한바 協議結果 如左한決議를한後 五名의 實行委員을 選擧하바 右實行委員은 十六日午前八時半本部에集合、鳩山、中島、前田、島田等四代行委員을 歷訪 右決議의 主旨를傳達、總裁設置促進을 要望키로되여 同八時半散會하엿다

◇決議
總裁를 速히 決定함은 我黨의 輿論이다 엇저 公選停止以來 그 決定의 一任을바든 代行委員 各位는 爾來半年을 經過 議會再開가 目睫間에 迫頭되여도 아직 이를 決定치 못함은 公黨의 面目에 關係되는바 至大하다 各位는 그 責任과 時局重大性에 鑑하야 虛心坦懷 卽時 總裁候補를 決定하기를 바란다

海鷲成都爆擊

【上海十六日發同盟】成都로부터의來電에 依하면 海軍航空隊는 十五日正午 第一回四川省成都空襲을敢行 同地各軍事機關을 爆擊、多大한損害를주엇다

카ー英大使重慶着

【漢口十六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湖南省某地에서 蔣과會見한後 十二日貴陽에到着한 카ー英大使一行三名은 十五日午後三時重慶에到着한바 十六日行政院長孔祥熙、外交部長王寵惠、軍事委員會主任張群等 各其訪問할터이며 그리고 十七日行政院長孔祥熙主催歡迎會에 臨할터이다

各部隊空陸呼應 / 潼關附近敵猛擊

【運城十六日發同盟】赤色루ー트 遮斷을 期하는 我空軍의 大作戰에 呼應하야 地上部隊는 黃河對岸의 敵에 勇猛果敢한 攻擊을加하고 我將兵은 方今 陝西攻略의 意氣에 躍動하고잇다 高橋砲擊部隊는 十五日夕刻으로부터 潼關附近에 集結하고 잇스면서 戰戰兢兢하는 敵에 對하야 一齊히 砲擊을 開始하고 岩切部隊의 一部는 十四日 朝來 張店鎭(夏縣南方二十키로)에 蠢動하고잇는敵 第百四師 第百七十八師의 殘敵 約一萬에 對하야 猛攻을 開始하엿다 銃砲聲은 殷殷히 黃河의薄氷을 깨트리고 中條山脈에 反響하고잇다

"從來秕政을一掃 / 樂土建設에邁進"
梁院長東京서聲明發表

【東京電話同盟】宿舍帝國호텔에 入한 中華民國維新政府一行의 梁院長은 十五日夜九時新聞記者團과의 會見席上에서 다음과가튼 聲明을 發表한바 新興政府의主席으로五十七歲라고는보이지안는 童顔에 不絶히微笑를띄우면서 一言一語힘잇게朗讀하엿다

近年 蔣政權은 國交를解하지 못하고 友邦의正當한 勸告를 無視하야 公然하게 共產黨과 提携하게되엇스므로 友邦은不得已 多數의犧牲을 忍耐하고 滅共倒蔣의師를 進하야 어느덧 廣東 漢口를手中에 掌握하게 되어 蔣政權存命의 餘地는업서지고 中國의大部分에는 五色旗가 燦然하며 列强亦是舊態度를變改하려고한다 余는 이 友邦의 崇高한精神에 對하야 敬意를表하고同時에 陣歿將兵及 遺家族에對하야 深甚한弔意를 表하는바이다 余는 民國十年以來 三次 貴國을 訪問하엿는데 多少政情을 硏究한도잇는바 今回來訪의 目的은 中華民國維新政府成立의 今日에至하기까지 貴國朝野의 上下一致的으로示한 特別히好意와 不斷의 援助에對하야 政府를代表하야 謝意를表하고同時에 貴國政府當局及在野各名流를訪問하고 東亞共同體制確立에 對한懇請을 受하려고 意見을 拜聽하기爲함이다 我政府의施政方針은 防共親日經濟提携 그基本인 復興과 農村의產業은 日益進步하고 努力한지 七個月間에 略 臨時政府와의 聯合委員會를 組織하엿스며 行政도亦是 漸次로 그能事를盡하야 政府組織도 漸次로 强化하게되엇스나 政治 文化及生活의 全般에 亘하야 旣往의秕政을 一掃하고 眞實한樂土를建設하기爲하여서는 勿論 아직도 前途尙遠하다 我等은 一層勤勞努力하야 復興의 目的을 貫徹하고 貴國이 我等에 示한 熱援助에 對하야 그 期待에 報答하고 日支親善 東洋和平의 理想을 實現하고야말 決心을 有하고잇다 今回 貴國에와서 그 第一步로부터 朝野 各方面의 참으로 親切한 歡迎을 바든것은 衷心으로 感謝不堪한다 願컨대 이好機會에 各方面의 指導를바더 新東亞復興再建의 指針으로하고저한다 (寫眞은 梁鴻志氏)

北、中支全地域에
民衆和平運動急展開

【北京十五日發同盟】漢口陷落을 契機로 北支及中支 全地域에 亘하야 澎湃하게 勃起한 反共救國運動은 다시 全面的和平運動化하려 하고잇다 臨時政府治下에서는 十六日 北京에서 開催되는 中央反共救國大會를 始初로 約一個月間의 豫定으로 北支各地에서 反共倒蔣大會가 開催될것인바 如斯한 氣運에 呼應하야 中央在野의 諸元老有識者間에도 中國民衆의 犧牲에 依하야 繼續되는 焦土抗戰을 早速히 終熄시키고 速히 東亞의 新基調에 立脚하야 和平建設에 邁進하려고 新打開를 爲하야 挺身하려는 動向이 急速히 具體化하고 잇는것은 極히 注目된다 此等 有力者들은 近日 諸元老와 蔣將領의 參加協力을 要請하고 또全中國의 同胞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中國의 平和的收拾과 新中國再建에 全國民이 協力參加하기를 要望하고 一大和平建設運動을 惹起하려하는데 一兩日中에는 그 第一聲이 全支那民衆에告하는 通電으로 具體化할 作定이다

有田外相 / 外務首腦强化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일찍이 外交政策立案의 부레인트러스트를 만들 意嚮이 여러가지로 考慮中이던바 이지음 現葡萄牙公使松谷順氏에 歸朝命令을 發하엿다 歸朝後는 來年度에 企畫局으로 改組할豫定인 調査部長에 起用할것으로 豫想되며 今後澤田大官 栗原東亞局長 松谷企畫局長의外交首腦部陣容은 자못注目을끈다

要港部、艦隊司令官 / 親補職에昇格

【東京電話同盟】海軍要港部司令官中 親補職은 舞鶴要港部司令官에 限하여잇던바 今回戰時體制化를 爲하야 大湊 馬公 鎭海 旅順各要港部司令官을 親補職으로하고 또聯合艦隊司令長官艦隊司令長官外 새로히 獨立艦隊司令長官을 親補職으로 하기로 決定하고 右에伴한要港部令 艦隊令 旅順要港部令의 各改定을 十五日軍令으로써 各各公布하엿다

長沙市民撤退開始
廿萬武裝市民은前線에

【上海十五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이미長沙放棄를決心하고 同地市民을 모두 奧地로 退去케하엿다 國府當局은 十五日長沙南方 百五十粁、岳州를 距하기 二百粁되는衡陽及 그北東衡山兩地의 一般市民에 對하야 奧地退去를 命한바 이미 一部는家財道具를 整頓 西南方으로 向하야 總撤退를開始하엿다 이兩地는 事變勃發以來 市民中의 靑壯年團에게 强制的 軍事訓練을 施行해온것인데 今般一般市民의 退去에 當하야 이들訓練을바든 團員 二十萬은 武器를주어 前線各正規軍에 配備키로되엿다고 傳한다

蘭州大空襲은 / 陸鷲의單獨壯擧

【〇〇基地十五日發同盟】十五日 早曉를 期하야 敢行된 原田部隊의 蘭州空襲은 今事變은勿論 陸空軍으로서 일즉이 試驗해본일이업는 劃期的空襲으로 〇〇部隊長은 相當한 犧牲을 覺悟하고 잇섯든것임에도不拘하고 大成功을한後 全機無事히任務를遂行코 歸還한것은 陸空軍戰史에 빗나는 劃期的壯擧라하야 注目

外蒙肅正犧牲 / 一萬名을突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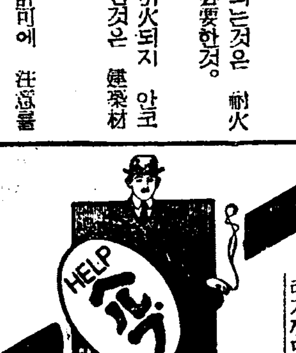
綏遠(厚和)으로부터 當地에入한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反蘇運動을 理由로 最近까지에外蒙에서 逮捕된 者는一萬名을突破하고그中에는 要人으로 肅正의犧牲이된 데밋드元陸相과 直接關係가 잇다고 보이는 一千名의 著名한 蒙古出身 赤軍將校가 包含되어잇다 特히 無慘한 彈壓을 蒙한것은 喇嘛僧侶로서 今年末까지에 銃殺된 者만 數千이라고한다 如斯히하야 蘇聯의外蒙彈壓은外蒙軍에 直接多大한影響을주어 士氣沮喪하야 完全히第一線軍隊로서는 役割할수업도록 萎縮되엇다 이에反하야 民衆의 反蘇運動은 彈壓과 比例하야益益 熾烈을 極하야 外蒙內部는 危機爆發의 前夜에잇다

人面錄

◇昌信町 火災事件은 脫稅行爲와 失火罪로 取調한다고。
◇帳簿에 記入된 油類數와 實際 貯藏量사이에 差가 잇고、
◇不注意로 꺼젓든데 引火시켜 過失이 그 要點。
◇世上은 非常時라고 統制、取締가 甚한데、私利를 目的코 許可量以上을 貯藏함은 容貸못할일。
◇同時에 생각되는것은 耐火性 建築物이 必要한것。
◇煉瓦建物엔 引火되지 안코 木造家엔 引火된것은 建築材料때문。
◇今後의 建築許可에 注意할 要點。
◇初等敎員이 不足하야 代用敎員을 採用하리라고。
◇그것도 無妨、旣定計畫을 遲延치 안는것이 무엇보다 急先務。

人事・集會

▲穗積眞六郞氏(總督府殖產局長) 忠南地方農村振興狀況視察中十六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驛着 歸任
▲崔萬熙氏(恰泰棧洋行支配人) 總督府主催中支、南島見本市參加次十六日午後四時十五分 아가츠기로 京城驛出發
▲魚澈氏(醫師) 十六日朝京城府仁義町 一七〇番地自宅에서遭外艱
▲孫渡盛廣氏(奉天東光學校 名譽校長) 東光學校財團期成用務로 入京 人事次十六日來社 半島호텔 滯留
▲徐範錫氏(在滿朝鮮人通信主幹) 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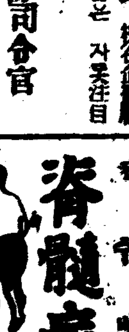


胃腸
ヘルプ
加答兒의良藥
柏村博士創製

本邦胃腸藥中가장精妙한配劑에依하야서 嶄新光輝잇는成績을示하야、二十年來의聲價를保持하는ヘルプ는食傷、水傷、時候傷、寢冷、冷腹等으로起因하는胃加答兒의治療에效果잇고、特히泄瀉、腹痛을消退하며消化와榮養機能을促進하는作用은、實로溫和하고快適하미이우에업스며 ‧慢性急性의胃腸疾患中左와가튼症狀에應用하여滿足한奏效를보는良劑이다。

‧어쩐지뱃속이異狀한때 ‧大便後、肛門에異常한感이잇는때 ‧口渴이나고어쩐지가슴이답답한때 ‧急激히泄瀉腹痛이생긴때 ‧頻繁히泄瀉하며、消痢를伴할때 ‧水樣泄瀉의오래繼續할때 ‧헷배부른때 ‧腹鳴이며속메슥할때 ‧食慾이업고트림이만히날때 ‧胃部에灼熱的疼痛이생길때 ‧食前食後에胃部가아픈때 ‧혀태가끼며口中의惡臭가잇는때 ‧榮養이나뿌고貧血인때 ‧養分이몸에攝取되지안는때

第一號 三十錢 第二號 五十錢 第三號 一圓 大 三圓
本舖 東京・池袋一丁目 津村敬天堂 振替東京八六四番
(全國の藥店にあり)



脊髓病
手足麻痺、骨節麻痺痛 脊骨突出等의 ...의如히
內容說明과共히
兵庫縣明石市中町 太平堂製藥社

疾風迅雷의勢で
全整髮界を
風靡した
近代の寵兒!!
丹項チック
純植物性 專賣特許
外國製보다優秀한 國產最高基本品
TANCHO 丹頂
發賣元 金鶴香水株式會社
¥ .65 1.00 1.60

洋服界의合理化
品質은官立保證付
◇見本送呈
二十五圓부터 四十圓까지 別誂注文冬服背廣三揃
二十圓부터 三十七圓까지 別誂注文冬オーバーコート
特約店大募集 (申込次第規約書送呈)
創業明治二十八年
大阪市谷町一丁目三七番地
羅紗問屋 正司憲商店 洋服通信販賣部

現代的趣味에最合하고賣行이極히良好한
ステッキ パイプ 卸商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筋
(申込次第) 型錄進呈
合名會社 井村友三郎商店
電話船場四一〇二・振替大阪貳八九〇番

エーオー
AO 結核免疫元
有馬・青山・太田三醫學博士創製

現下의 非常時局에際하야、靑少年의結核罹患、發病死亡이年復年더해감은 實로寒心한일이며 特히 戰後의 結核을如何히處理할까하는것은 國民各自의 愼重考慮할 焦眉의重大問題입니다
玆에 可及的早期治療에依하야 此疾患의 重大化를 未然에防止해주기를 特히醫家諸賢에바라는바이다
AO는本邦에잇서서 이미 二五〇萬人注射의 實績을有하고 外國에잇서서는 三〇餘個國에 進出하는活況에잇다

AO의特長
一、特選菌株의特殊培養……免疫作用旺盛
一、多價的인것임……實用効果大
一、適應症을擇하지안함……副作用絶無
一、免疫元의吸收를妨害하는 鹽類無함……異物作用업고吸收容易
一、純粹한免疫元으로됨……抗病力喚發
一、完全한自然死에빠지는菌體의免疫有效成分……絶對無危險
一、菌의免疫元性을害하는 何等의處理도하지안함……免疫元의自然性保持
一、効力檢査(家兎의人工眼結核을確實히治癒시키는實驗)를지나서市收함……効能不變

AO의適應症
肺結核、眼科結核、肋膜炎、腹膜結核、外科結核、特히初期肺結核、及眼科結核、喘息等에對해서 著効잇는事實이證明됨
潛伏結核、淋巴腺腫、腺病質、結核疑症、特히腺病質과結核의疑心잇는個體、特히小兒及靑少年等에對해서 體位增强을爲하야 應用되고 效果顯著함이證明됨

AO의質疑應答 AO에關하야 또는結核의質問에는懇切迅速히藥店學術部에서應答함
(解說贈呈)
發賣元 大阪市東區北浜町四丁目四〇番地 須美商店

揮發油密賣嫌疑로 脫法行爲猛烈追及
昌信町日米礦油火災事件의新事實
關係者等을徹夜取調

십오일 부내창신정(昌信町)에서일어난 일미광유(日米礦油)회재사건에대해서 소관동대문서에서는 사건중대시하고 주시발회현장에 잇던 인부이종성(李鍾聲)여종희(呂鍾熙)이 두사람을 인치하는한편 직접 책임자인 일미광유전주 부내 봉래정(蓬萊町)일정목이십사번지 옥목풍길(玉木豐吉)외두명의 사무원을 소환하야 동서장의 직접지휘하에 밤을새워가면서 취조를 진행시켜 아직도계속취조중이다 이처럼 경찰측에서 이사건을 중대시하게된것은 불에타버린것이여니것과는 달리군수품으로전시인 현재에잇서 극히중요시되는까솔린이 이천칠백이십관(罐)이나 된다는사실이 그것째되는원인이지만 사건의배후를 한결더 의심케하는것은 석유회발유와가튼 물품은반드시경찰의허가를받어야 저장할수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를무시하고 한동계좌이 업섯다는점과 실지로 회사의 장부를조사해본결과 회사측의 재고품과 보고와의 사이에 엄청난차이가 발로되엿다는것 이두점에 주로 경찰의 의혹은 집중되고잇다는데 흑은이것은 요즘소위 까솔린통제로해서 그배급이 전표(傳票)제도로 되엿기때문에 기름이귀한 자동차 업자를 비롯한수다한 소비자와 비밀리에 새로짜고서 규정외의 고까로 융통을해주고 탈법적인 이익을 먹어온것이나 아닌가 추측되여 박금여기에대한회사측 장부를 압수해다가조사하는등 맹렬히 그진상을추궁중인데 만일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날에는 사건은 일미석유를 뛰여넘어 널리각처의 대석유 배급사와 자동차계에까지파급될 염려가잇서 그귀추여하가 크게주목된다

思想關係는업슬듯

일미광유의 회재사건에대해서 그후경찰에서는 회사측의협박밥매여부를주로 주중중이지만 이와는별개로 고등계가 주재가되여가지고 까솔린창고에서 이러난회재이니만치 혹은 배후에면의 첩(外諜)관계 내지사상관계나숨어잇지안나하고도 외사과와 협력하여 현장에잇든 인부를검거한후 극력내사해보앗스나 아직은 그가튼눈치는 보이지아니하외 적사상관계와는 관계가업는듯하다고한다

會社側談

발화책임자 업서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기는 곤란하나 창고설정에대해서 경찰에게 말을 안햇다는것은 처음에 이번 창고에는 회발유는 저장할요량이아니엿고 다못모비르등속의기름만을 저장할예상으로 빌렷든것이 창고가부족했든관계로 최근에와서 회발유까지도 거기다 저장케된것인듯하다 이런관계로 아마 계속할태만케된것같다 그리고 장부와재고품에 차이가잇다는것은 혹은입짜기라의 다소의차이는 잇섯을넌지는 모르나 그러케 중대한문제까지 이러날것은 아닐것같다 단순한 기술상과오가 아닐가 도이만여원어치의상품에도불고하고 회재보험에 들지안코 잇는것은 회발유와가튼 불이나기쉬운 물건은 회재보험회사에서 바더주지안키 때문이다 운운

淸州에小火

【忠北支社電】지난십오일오후한시오분경 청주읍남천정(南川町)의 연재동(延在東)의집재간에서 발화하야 전기연씨의집을 반소케되엿다는바 손해는약십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불이잇든 재를 재간에 버린까닭이라고한다

消費層自覺要望
經濟警察의業者監視와아울러
物價抑壓의完璧對策

장기건설하에잇는 국민생활안정유지확보를 기하기에 가장중요한시설인 물까등귀억제에대하야는 총독부에서 물까전문위원회(物價專門委員會)를신설하고 여러번회의를 거듭한결과 이미 연료(燃料)섬유(纖維)등의 판매최고가격을결정하야 공식발표하바 잇거니와이에대하야 다시그실시철저를기하고저 경제경찰제도를 실시하야그위반취체를 엄중히하는중인데 최근일부업자중에서는 이와가튼 당국의 진지한노력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올려서 공정최고판매가격이상으로판매하여 폭리를 탐하는자가 잇스므로 총독부경무국에서는 총독부와 각도경제경찰에 엄한 인원배치도 완료되어 물까취체의 신진용도 이에정비되엇스므로 금후는물까취체규측과 폭리취체령을 배경으로 마침내 본격적 활동을개시하야 그사명달성에 매진하기로되엿다 물까등귀억제는 다만 공정물까의 제정과 취체시설의 강화철저만으로는 그완벽을기하기어려운 실정이에비치워 총독부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업자의반성과 일반대중의 자각에의한 협력을구하고자 불원간각도에통첩을발하야 적절한 조처를 단행하기로되엿다

密輸判明七萬圓
平壤署에서檢擧한金密輸事件
取調따라더욱擴大?

【平南支社電話】평양경찰서에서는 평양부관후리(館後里)대동금은상회(大同金銀商會)에서 금밀수를한다는 소식을 탐문하고 시월이십이일에 가택수색을하고 증거물로서 금괴상배몬매와 고무삭꾸기계를 압수하는동시에 주인배형준(裵亨俊)(三〇)을 위시하야 이래여관계자로 남자네명 여자여섯명을 검거취조 중이든바 이들은전기 배형준이가 중심이되여 지난사월부터각처로 도라단니며 현시세보다이삼원 빗싸게 사질원내외로사가지고 여자들로하여금 만주봉천(奉天)으로밀송하야 이십이원식에 팔어왓는데 지금까지 판명된밀수한금괴는 삼관(三貫)에서 가격약칠만원에 달한다고한다 한편 메에대하야 약오원의리익을 어더가지고 여자들에게는 한번에 삼십전식 수당을 주어왓다 사건은 아직 더확대될모양이다 사건관계자는다음과갓다

▲男子 裵亨俊(三〇)李俊浩(三三)康東鉉(四三)▲李仁洙(三三)▲女子 林特寶(四三)▲劉貞姬(二六)▲許順(三三)▲李明淑(四二)▲李賢淑(四九)蔡順寶(四二)

少年窃盜二名
女給戱弄타被捉

십사일밤 서대문서원이 염천교(鹽川橋)부근 모음식점에서 여급과 희롱하며 술을 먹으랴든

恩賜財團으로 軍人援護會組織
今月末頃에具體化

지난달 군인원호(軍人援護)를 도웁기위한 어하사금으로내지에서는 지난오일 은사재단(恩賜財團)군인원호회(軍人援護會)가설립되엿는데 조선에서도 이에순응하야 조선의 은사재단 군인원호회를 설치하고저 방금총독부당국에서는준비중이다 이달하경에는 구체화되리라고 하는바 조선의군인원호회는 …에각도지부를둔다

一、지부는 그소재도명을부친다
三、지부의 기부행위또는 회측은 본부장의 승인을밧는다
四、본부 지부에는 대체로 본부장 지부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를두고 도사정에따라 고문을둔다
五、평의원회를 두어서 의결(議決)기관으로한다
六、목적은 지난달삼일 하사하옵신 칙어(勅語)의 뜻을받들어서 은사재단군인원호회의목적을 …하고 그사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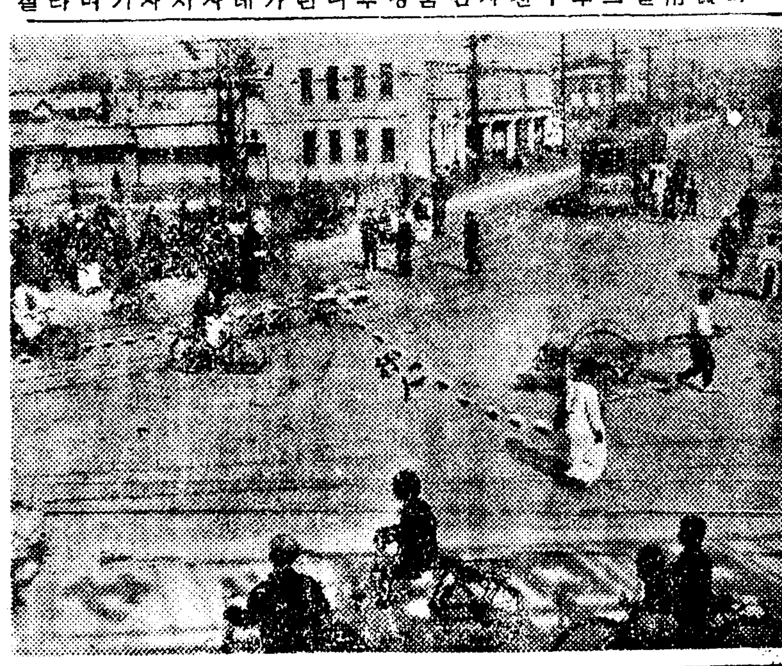
海運朝鮮의新段階
造船能力擴充强化
大船渠建造와木船製造業者統制合倂
遞信局對策을講究中

"해운조선"(海運朝鮮)의 건설을목표로 체신국에서는 조선자체의 조선능력(造船能力)확충강화책을 적극강구중에잇다 조선의 조선계(造船界)는 종내 부산에 서조선공소(西造船工所)… 대정사년 이래로 … 를세웟을뿐 … 로 이것이 완정되는 십오년도 … 소화십이년 동회공소를 조선중공업회사가 매수확장하야 착착 면목을일신하게되여 금년도에이르러 동회사는 오십만원 … 할여정이다 도에 이르러서는 조선의 조선능력은 상당히 충실하야지게되엿다 … 가 진출하도록 대책을 강구중임으로 이것이 실현되는때에는 삼면바다에 면한 조선의 조선능력은 비약적 발전을 보게될것이다 도하나는 어업의발달과 연안 근해 무역의 왕진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목선건조능력을 확충하려는것이다 지금조선안에는 목선만드는공장이 약육십여처가잇스나 모다가 거의 원시적 기술이빈약하야 큰 목선은 거의전부를 내지에서사드리는형편으로 해마다 조선에서 내지로건너가는 조선비(造船費)는 이백만원 반이되는 … 의거액에달한다 이돈을 조선안에 떠러트리게하는동시에 목선의조선능력을 강화시키기위하야 체신국에서는 군소목선제조업자를통제합병하고저 지금 조사연구중임으로 그실현은 멀지아니하야 조선의 해운계발전에큰힘이될것으로 기대된다

利害에無視된人命
病院아페서轢傷、危篤한사람을
特約病院으로끌고가다絕命!
京電의沒人情的處事

십육일오전열한시반쯤 부내황금정(黃金町)유정목전차 『카ー브』 도는데서 신당정(新堂町)일백삼십삼번지 차준봉(車俊鳳)(六〇)라는 노인이 신당정방면으로부터 와서 전차길을건너라다가 황금정에서 동대문으로가든 삼백일호전차에치어 두개골이 깨여젓다 경전에서는 이중상자를 죽첨정(竹添町)적십자병원으로실어갓스나 도중에서절명되엇다 그런데 사고현장부근에 부민병원(府民病院)이잇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경전측의 특약판계가잇는 병원이라해서 십리나떠러저잇는 적십자병원으로 다려간 경전의 처사는 이해판게에끌리어 인명을구치한비인도적행위라하야 현장목도한이들의비난이 만하다

사고현장은 장충단 신당정 황금정 동대문방면으로 통하는교차점으로 매우 교통이복잡한곳인데 현장에는 본정서사법계범대(帆代)경부보가 게원을대동하고 검증을나왓스며 경찰부보안파 압부(安部)경부보도 임검하엿다



詳細調査中
京電側의말

하는데 저차과장대리로 운수계 판본(坂本)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부민병원부근에서 이러난교통사고의피해자를 적십자병원까지 다려간것에 대하야 전차파에서는 책임자가 전부외출중이라고 그 사건의 보고는 들엇는데 부근 부민병원으로 가지 안코적십자병원으로 간것은 지금 곳 병원으로 조상을 가는동시에 자세한사정을 조사할터입니다 하여튼 경전으로서 사고를 또내엿다는것은매우 죄송한일입니다

괘씸한일이다
檢證後 安部警部補談

바로여페 부민병원이 잇슴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병원까지 다리고 갓다는것은 괘씸한일이다 경전은 자기네의 예약병원이 잇서서 이런짓을하는 모양인데 어상태로는 넉넉히 구조할수잇는 인명을 시간이 느저서 구하지못하는 경우가 만흘것이므로 아프로 철저히 규명할생각이다 (사진은 사고현장)

白晝街上捕盜劇
少年에게暴行、奪金逃走犯을
行人、警官이追擊逮捕

백주종로대로상에서 행인의돈을 강탈도주한 강도사건이잇다 십오일오후 열시십분경 길주(吉州)출생 강승복(姜承福)(二〇)이란 소년이 종로어정목 구십팔번지 아름지날지음 뒤에따라오든사람이 이야기할게잇스니 조금 가자하고 세스프목으로끌고드러가서 팔을 틀고소지금오원을 강탈도주하얏다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간 원서경(元西敬)과 사십팔번지 오근선(吳根先)(二〇)이 주겨일파 고다 공원에 일르러 일대격투가 일어낫슴에 순시중의조로 서원이가서 체포하얏는데 범인은 부안(扶安)출생 봉래정(蓬萊町)삼정목팔번지 복만(福萬)이라는 이영율(李永律)(二〇)으로판명되여 엄중취조중이다

丹楓닙과함께 떨어진목숨
漢江에投身한妙齡女

십오일오후네시반경 부내본동 명수대(明水臺)부근 한강(漢江)가에 이십여세되여보이는 묘령여자의시체가떠잇는것을 통행인이발견하고 소관용산서에 보고하여왓스므로 계원이경찰의를 대동하고 가서 검시한결과 동일아침에 투신한것으로 판명되엿는데 손에는 단풍닙을 꽉 거쥐고잇서 다정한 여자의 일면을 보이고 잇서다한다 신원은 방금 조사중이다

天氣豫報

豫報 今夜及明日은晴

昨日 最高 一〇度二
同 最低 零下〇度四
十六日朝最低 零下〇度九
同正午 九度五

主人의小切手
盜用未遂의뽀이

주인의 소절수등장을 찌저가지고 금액을기입한뒤 은행에서 차즈랴다가 발각체포된 깜직한 여판뽀이ー 이십육일 오전열시경 수상한 소절수를 가지고온 소년이잇다는 식산(殖産)은행의 신고를받고 본정서원이 달려가서 본정(本町)이정목 유십구번지 포미(蒲尾)여판주인외 소절수액면 이천오백원짜리를 차즈랴고 창구에 기다리는 김상구(金尙九)(一七)란는 소년을 체포하야다가 취조한결과 그는 전기 포미여판주인의 소절수장을 이용하야 일전에 오백원을 차저서 아현정(阿峴町)일백십칠번지 자기아버지집에다 숨겨두고 도요번에는이천오백원의 액면으로써서 은행에서 차즈라다가 발각되엿는데겨우차저다둔오백원은 즉시 본정서에서 압수하야왓다 도칠로 수간적하량을구하여 다니다가 전기와가티 서대문서에 체포된것이라고한다

豆滿江結氷

【咸北支社發】이삼일전부터한파가 닥처와서 경원(慶源)지방에는 영하칠도로 내려가 두만강(豆滿江)은 십이일부터 결빙하기 시작하야 도하불능케 되엿다

優良機關區
表彰金賞牌

철도국에서는 기관구(機關區)표창규정에따라서 렬차이백만키로의 무사고로 주행(走行)한 성진(城津)기관구에대하야 오는이십이일에 공등(工藤)철도국장으로부터 금색상패(金色賞牌)상장과 장려금을 주기로되엿다 성진기관구는 금년이월에 일백오십만키로를 무사고로 주행하엿스므로 표창되엿는데 이번에 드듸여이백만키로를 무사고로 돌파한것이라한다

道山書院復設
儒林等이協議會

조선의대표적유학자 의재(毅齋) 이제현(李齊賢)선생을 모신 서원의 복설은 그간유림대표등과 보존회에서 운동해오든바 이번에 그구체안을 세우기위하야 선생의 향사일인 래십일월이십오일(음력시월초사흘)에 경기도 장단군소남면박연리(長湍郡小南面朴淵里)선생묘하에서 기성회를 열터이라고한다

城大理工學部校舍
楊州孔德里로決定

이백만원의 방대한 예산으로 건축하기로 제반설비를 경성제국대학리공학부(京城帝大理工學部)는 양주군노해면공덕리(楊州郡蘆海面孔德里)에 건설하기로결정되엿는데 당국에서는 명춘해빙기를 기다려서 위선 교사건축에 착수하야 이것이 낙성되는대로 곳게속하야 제반 내부설비를 시작할터인데 교수는 약오십명으로 지난여름에 속수(速水)총장이동경(東京)에 출장하야 사계권위자를 망라하야전부 결정하얏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라디오學校(京城)▲六時童話와童謠(平壤)▲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六時三〇分講演▲七時三〇分 講演▲八時(東)合唱▲八時二〇分 誦▲九時連續唱劇▲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東)傳人▲六時二五分(東)講演▲六時四〇分(城)同▲七時三〇分(東)謠曲▲七時四〇分(東)講演▲八時(東)同▲八時三〇分(東)時局講本▲八時四〇分(城)琵琶▲九時(演)浪花節

色鉛筆

적은것과 큰것에는 나무의원줄거리와 가지나입파의 판계와갓다 즉 나무의 근본문제는 굵자그대로 원줄거리와빽리라는 큰것에잇는것도 사실이나▲나무가지와 입어서서는 나무의생명을 또유지할수업다 나무가지와입은 적은것이나 그수효가만허서 그기능을 크게발휘하는때문에 그존재이유가 크다▲그러나 꺽기쉬운것은 가지와 입이라 대단히 만만한것으로취급되는데▲이것은 나무가지에만 한한 문제가아니라 온갓것에 이 이치가 부합된다▲근일 가장 주목을 끄는 문제로 경제경찰이란 것도 큰 재본을 가진 도매상이나 무역상에 대해서 협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소매상에 밋치는영향이 크다 우선소매상은 경제경찰을 무서워하는것만도 큰일이라할것인데▲동대문밧 광유회사의대화재를 보아도 회발유를숨겨둘수잇는것은 그도취체란것이 적은데가서너머 잘게심하고크게 물건을다루는큰곳에는 너머느슨이도문도문 취체를하는탓은 아니엇든가▲근본과 지엽의 문제는경중이없어 가다고불것이다

스포ー츠欄

關東學生拳鬪
李、康、崔君等猛躍

關東學生拳鬪選手權大會兼比島遠征代表 關東學生選手權決勝戰은 十三日午後三時부터 神宮相撲場에서 擧行된바 그戰績은 다음과가티 朝鮮出身選手가 四階級의 覇權을 獲得하엿는데 이들은來二十六、七日에 열리는 全日本選手權兼比島派遣最終選考에서 朝鮮代表와 어울리 爭霸戰을 展開하기로되엿다

【플라이級】 小島(日大) 判定 水谷(日大)
【밴탐級】 李(專修) 判定 橫山(日大)
【페더ー級】 李相演(日大) 判定 栗谷(早大)
【라이트級】 康仁鎭(立敎) KO 榮(明大)
【웰터ー級】 崔龍俊(明大) 判定 金昇煥(明大)
【미들級】 天野(明大) 判定

養正리ー그一敗

秋季리ー그…養專對養正戰은 十五日午後四時十分부터 龍山球場에서 盛田氏審判下에 養正킥어프로 開始하바 養正의 奮鬪도 허되이 結局五十三對零으로 養正이敗하엿다

養專 53 (25 28 / 0 0) 0 養正

京城老童排球大會

朝鮮排球協會主催의 京城老童排球大會는 二十日午前十時부터 龍山鐵道코ー트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關東大學蹴球戰績

關東大學 蹴球리ー그 第二部 외十三日 對戰結果는다음과가트며 商大는 二部에서 全勝하야 第一部로 昇格되엿고 拓大는 全敗하야 第三部로 下落하엿다

商 大5 (1 4 / 0 0) 0 法 政
商 大6 (4 2 / 1 0) 1 拓 大

關西學生籠球(十三日甲子園)

甲 南39 (24 15 / 20 12) 32 大商大
京 大64 (27 37 / 31 14) 45 神高商

關東大學籠球(十三日體育館)

早 大42 (30 12 / 23 9) 32 明 治
立 敎52 (32 20 / 20 17) 37 文理大

平壤中等蹴球리ー그

【平南支社發】朝鮮蹴球協會西鮮支部主催 第一回全平壤中等校蹴球聯盟戰은 十二日부터 三日間行할豫定이엿스나 事情에依하야 十九日부터 擧行키로되엿는바 參加校는崇實學院等으로 崇仁商業、光成中學、第二中學三校뿐으로 對陣及試合日程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는데 場所는 二中球場이라한다

◇十九日午後二時 崇仁商業―平壤二中
◇二十日午後二時三十分 平壤二中―光成中學
◇二十三日午後二時三十分 光成中學―崇仁商業
(게임은 七十分間)

アンチフラミン
外塗內治藥
本位 效果
(全國有名藥房販賣)
感冒等으로因하야 肺炎·氣管支炎(特히小兒)의 危險이잇슬때에 アンチフラミン을바르면 濕布劑보다도그藥效가迅速히나타납니다
또한 神經痛·胸痛·肩胛痛·腰痛等에도 本劑를바르면 卓效가잇는外에 婦女의月經痛에도 下腹部에바르면疼痛을停止하고 行經을順調롭게하는 까닭에 各病院은勿論 一般家庭에서도 널리使用합니다
適應症
肺炎·感冒·肋膜炎·로이마치스·扁桃腺炎·氣管支炎·關節炎·神經痛·打撲傷·乳房炎·月經痛等
瓦 20 瓦 60 包裝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大連·上海·天津·臺北·米國羅府
Antiphlamine

精力强進劑
參茸トニク
「參茸トニク」를愛用하는 布哇舞姬·小澤かほる孃
健康한現代人은 朝夕一杯의 參茸トニク로부터活氣를엇는다 今日疲勞는업서지고明日의生活의快活을約束하는參茸トニク!
本劑의少量을服用함은體力精減退·神經衰弱·病後衰弱·結核肺病·貧血症·早老等에著效잇는것은世界的臨床報告로 만흔試驗에依하야明確하다
全國各地有名藥店及파ー트藥品部에잇다
¥5·00 ¥2·80
京城鐘路三丁目 製造元 都草堂製藥株式會社
京城本町四丁目 發賣元 株式會社 木村藥房

百日咳에
コデス
效果一等 코조가덕
定價二十錢부터
藥店에잇습니다
東京赤坂區溜池三番地 大原商店

朝報案內
壽犬 세빠ー드 少黑色 十二月夜 新橋町六ノ一 九森本正

佐伯家具店
本町二丁目派出所前
郵便局 新築移轉하엿사오니 倍舊愛顧하심을 切望하나이다
電本二三七〇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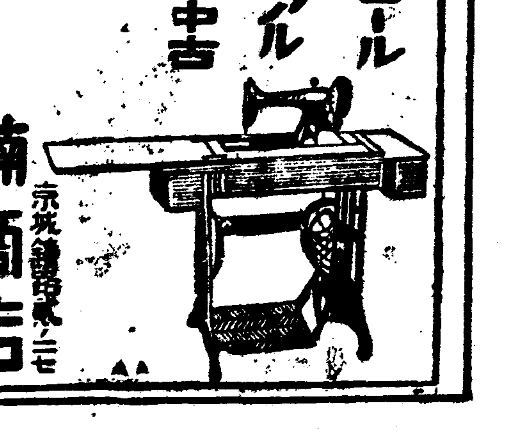
社員募集
資格 中學校卒業 二十五才乃至五十才 男女

西鮮監督所

小便病
兵庫縣明石市 小便病 國民保健社

漢藥種商講義錄 新版出來
京城鍾路二丁目 朝鮮藥業研究社

朝鮮文으로編纂된唯一의
速修 英語講義錄
京城府茶屋町五五 英語通信研究會



各種ミシン
コントロール
アイデアル
シンガ中古
月賦販賣
楠商店
京城鍾路二丁目 電光三一九六

七萬圓大奉仕

朝鮮初有의大壯擧
一萬箱無料進呈
家庭救急 常備藥 十二種式

非常時 國民健康을爲하야
一萬家庭에보내는保健선물箱

●때는正히 非常時입니다 國家的으로 健康을 高唱하는時代입니다 健康이야말로 人生最大의資本이요 最强의武器입니다

●百補丸이 時代에 가장 適合한 世界的 漢方强壯劑로서 또는 非常時 健康增進劑로서 더욱더욱 四海諸彦의 獨占的愛用을밧고잇는것은 實로 社會保健、國民健康을爲하야 慶賀하는바이오나

▲本社는 一層 諸位의 家庭保健을爲하야 以藥報國의犧牲的大奉仕로 總額七萬圓의 家庭救急常備藥品 一萬箱을 提供하야 全鮮一萬家庭에 無料進呈하기로하엿습니다

▲이것은 實로 朝鮮藥業界 有史以來 前無後無한 驚異的 大奉仕인同時에 一萬家庭의健康向上에 寄與하는바 實로 클것을 自信하는바입니다

無料進呈하는 家庭常備藥은어느 家庭에서나 保健上 絶對必要한 救急、豫防 治療、保健藥品等으로 十二種式(定價六圓分)을 百補丸愛用人士께마다 無料進呈하오니 勿失好機하시고 服藥의最好機연 只今 남보다 먼저注文服用하시기바라나이다

天下에百補丸以上 조흔補藥이업습니다

世界交通機關이 조와서 朝鮮에도 世界各國의 補藥이드러와 全部白熱的販賣戰을하고잇스나그러나

그效力으로나 販賣高로나 百補丸의 折半을 따라오는者도업습니다 그것은

京城의 運送店이나 四大郵便局發送係가 如實히 證明하고잇습니다 이原因은

그效力이 食事에나 陽氣나 筋力에나 精力에나 또 壽命에나 무엇에나 다른모든藥보다 特別히 큰 效力을 事實로 내인 까닭입니다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 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하는분
▲胃腸이弱하고 口味와食慾이업고 飮食消化가안되는분
▲神經이衰弱하고 記憶力이減退되는분과 肺가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肢節腰痛이잇는분
▲過飮過色人、咳嗽가잇는분、活氣가업고 여위고 早老하는분은 卽時 百補丸을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다 完補합니다

無料進呈方法

●家庭常備藥 十二種保健箱 (定價六圓分)은 百補丸一劑注文마다 同時에同包進呈합니다
●婦人百補丸、少年百補丸、其他十全 六八味丸等本社特製丸藥으로 十圓以上注文人께도進呈합니다
●注文書에난必히「家庭藥十二種付注文書」라고 初行에記入하여야됩니다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少年百補丸 一劑 五圓
【無料進呈】 어느것이나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百補丸一劑마다
十二種 六圓어치 家庭常備藥無料添呈

●年中一家健康、病院에 갈必要全無

●今番本社가 朝鮮에서 처음되는 家庭保健奉仕로 百補丸一劑 注文하시는 家庭에 無料進呈하는 家庭救急常備藥 十二種(定價六圓어치式)은 모다 京畿道警察部의 許可濟品으로 그效力이 正確할뿐아니라

●이藥十二種만 家庭에 常備하여두시면 家庭에病院을 設備한것과 마찬가지로 집안食口中 누가어니때 무슨病이나든지 卽時 卽時 곳치게됨으로 一家族이 모다 無病健康하게되야 一年中家庭에 憂患도업게되며 따라서 病院에가서 큰돈을드리지도 안케됨니다

●勿失好機하시고 이機會에 貴宅에도 반다시 家庭保健을爲하야 常備하여 두시기바랍니다

無料進呈하는 家庭救急常備名藥

一、	房後疲勞 氣血直補劑	正氣速補散
二、	吐瀉急滯 救急靈藥	唐麝香蘇合丸
三、	健胃消滯	蔘茸靈神丸
四、	학질약	金鷄納
五、	부스럼 피부약	皮膚萬能水
六、	다친데 상한데	沃度丁幾
七、	회충약	회충산
八、	두통약	健腦神藥
九、	담기침약	祛痰鎭咳藥
十、	해열진통	感氣藥
十一、	同	同錠劑甲
十二、	同	同 同乙

●合十二種六圓(福箱入) (京畿道警察部許可濟)

保健선물箱
定價六圓分
先着一萬人限

004113

京城堅志町五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話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

유행의첨단을것는「알루미늄」옷
벌서영국서울에나타낫다

유리로 옷을해입엇스면!하는 소원도 이제 「글라스와이버」가 나오게 되엿스득 — 반나마 소원은풀녓이고 겸분한적으로 옷을해입엇스면! 하고 꿈꾸는여자도잇슬껀데

최근 영국론돈의건축설계가 「킹모ー갠」이란사람은 양동이고 벨도그롯텐드는 쇠 축 「알루미늄」을 엷다라케 해가지고 모본단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는 옷을 떨짤기에 성공햇다합니다. 얼마나 찬란하겟습니까? 그런데 지난봄□□□에 그곳 어떤 양장점에서 입분 「매니킨」 며사람에게 엽혀 일반에게 구경 시켯다합니다. 이 알루미늄의 옷은보때의 은비바탕에 푸른이를 찬란하게 노흔것이잇서 여간 멋드러지지아햇답니다. 「킹모ー갠」씨는 다시 「알루미늄」으로 가ㅡ실을 짜가지고 이것으로 「레이스」도 짜고 「핸드빽」장갑 모사도 맨들작정이라합니다. (사진은 『모ー갠』씨의 알루미늄옷)

애기들 옷두텁게입히면 감기더잘듭니다
너무위하는게도리여파

점점 추워지니까 저항력이약한아이들은아무래도감기가잘드는데주의해야합니다. 감기를 들지아케하려면위선 의복을 적당하게 입혀서 몸에온도를 일치말어야하는데 우리입바가정에서는 의복을 만히입어야되는줄아나 더퍼노코 만히만입는다고 조흔게아닙니다.

더운옷은 부풀부풀해서옷짬에 공기가 만히포함해잇는까닭입니다. 털로짠옷이 덥다는것은 털옷이나 털실이 부풀부풀해서 보온(保溫)에 적당하까닭이고 털그자체가 다른것보다 특별히 더운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명이든지 스테이풀파이버든지 짜는방식만보온에적당하게짜면 대단히 따뜻할것입니다.

마침 지금형편으로는 양털이부족하니 스테이풀파이버에다 풋솜을두어서 쪽끼가튼것을 만들어파는데 그런것을 사입히면 대단히 조흘것입니다.

▼입히는방법=다음에 의복을 입히는방법인데 옷의 따뜻한것을 지배하는것은그 입히는방법에 달렷습니다. 즉 피부와의복, 의복과의복사이에 공기의간극(間隙)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옷은 좀넉넉하게 『사이가』잇서야 덥고 해수욕복처럼몸에꽉 드러붓게지여입는다면 덥지못할것입니다.

우리의몸과 입는 의복과 사이에 온도는 여름엔 더 만코겨울엔 적을것갓지마사 실입년동안늘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섭씨삼십이도쯤인데 습도(濕度)는 오십도가량입니다 습도가 오십도라면 대단히 간조(乾燥)한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필요이상으로옷을 만히입으면 땀기운이 축축히 나면서 이습도가 노파집니다. 속옷이 끈끈하게 젓도록되지안는정도라도 온도가 륙십퍼센트쯤되면 옷을넘우입엇다고 봄이좃습니다. 추울때 더퍼노코 두텁게만입히면 된다고 안심하는건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옷을너무입어 땀기운이잇나 속옷이 축축하지안나를 늘살펴볼것입니다 또는 갓난애기는 늘 저즌기저귀를 가라채여서 감기가 들지안토록해야합니다.

▼아츰저녁으로 조절할것=하로가운데도 외계의 기온이 달러지는데따라 옷을두텁게도입히고 엷게도입혀야합니다. 아츰과 저녁의기온은 대단히 변화가만흐니까요. 또는 더운방안에 잇슬때와 박게찬바람이닷는데 나갈때에 의복을 가티입어선 안됩니다. 특이 방속이 몹씨더운데 잇다가 갑작히 찬바람을쐬고 박그로나가면 영낙업시 감기가드는법입니다. 밤에잘때 자리옷도 반드시 가라입혀야지 입은대로재우는것은 여러가지로 조치못합니다

▼옷을너그럽게지어입힙시다=겨울에 아이들옷은 너무속솜만히두어서 몸을비둔하게 하는이보담 너그럽게지여입히는것이 조슴니다. 양복이 조흐나 털샤쓰가튼것은 빨면줄어들어서 아이들몸을 꼭졸라매므로 자라는데도해롭고 이상에 말한바와가티 덥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옷은 너풀너글하게 입히는것이 덥기도하고 몸을 졸라매지도 안습니다.

스테이풀、파이버ー 세탁강습회
회비를밧지안을뿐더러 세탁약과화장품도진정

本社學藝部主催

오는二十三日 하로동안

모직물이 줄어들고 그대신 「스테이풀파이버」란 인조섬유짠옷감이지금나오고잇는것은일이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아프로 우리의옷감이되고 현재도 만히되고잇는이 「스테이풀·파이버」에대한 여러가지 상식을 알어두어야 할것이며 더구나 서투른 그빨래법은 한번 배워두는것이 현대부인네의 의무일까합니다.

이런옷입사록 빨래를 잘못해노흐면 아조망치는수가 만흐므로 특히 그점을 염여하여 본사학예부주최로 이번에 사계에 고명하신 강사멋분을 청해서 「스테이풀파이버」 세탁법을 여러분께 소개코저합니다. 되도록 만히 참석하세서 새로운 옷감에 새로운빨래법을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습하시는분들에게는 자생당(資生堂)화장품과 세탁하는약품을 그저드립니다.

一、시일 십일월이십삼일 하로동안인데 시간은 오후한시입니다.

一、장소 본사대강당

一、회비 무료

一、강사 리화사, 정미인지 □□ 尼賞(□□)씨와 조수 정성옥(丁□玉)씨

외투손질은 이러케
위선다림질부터주의할일

이세 개켜너혓든 외투를끄내 손질할때가되엿습니다. 그런데 외투는 다시 손질할때 잘해야지 그러치안흐면 재미업습니다.

위선 바람이 잘통하는데 너러서 충분히 햇볏을 쏘인다음 가는솔로 솔솔 회차리에 헌거슬감어가지고 탁탁 털어서 몬지를 털다음 양복솔로 잘문지를것입니다.

그다음엔 『에리』 소매끗, 아랫두리가튼데 때가끼인것은 휘발유를 탈지면에 무처가지고 문지르면 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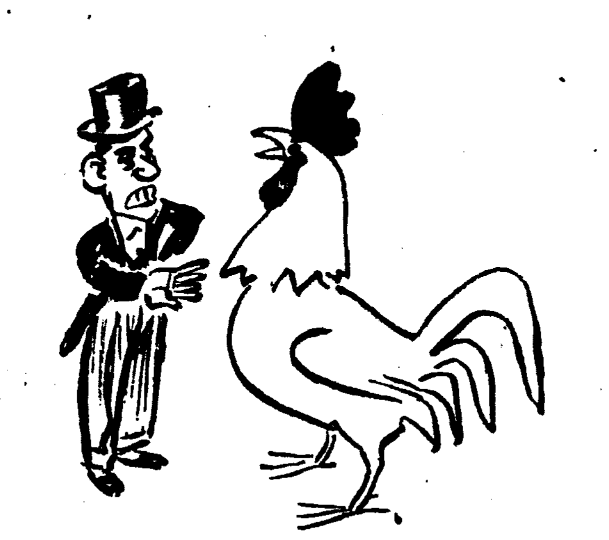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든것은 말고 만일 전체가 더러워서때를빼려면 붕사(硼砂)가루를 차숫깔로 셋쯤을 물한되쯤에탄것이거나 그러치안흐면 암모니아수를 오륙십배에 물에다 란것이거나 어느것으로든지 거기에 큼직한 수건을 적시여서 짜가지고 그것을 외투우에 펴노코 아조드거운 대림이로 눌너대려서 바람잘통하는곳에 걸어 습기를 말릴것입니다.

만일 볏우더러지 안흔것 어떤 그냥 봇수건을펴고 대려도 멀이 부푸면서 연가하게는빠집니다.

대림질하는 순서는 몬저 단추들이잇는 압자락에 속부터대리고 그담엔 소매、둥、압자락 어떠케 대립니다.

또는 외투는 틀에 세탁하거나 드라이、클리닝을하면모양이 송해짐으로 집에서하기는어렵고 역시 전문으로하는 세탁집에주는것이 제일안전합니다

지차리우



꼬꾀ー에벌금

『꼬끼ー』하고 새벽닭우는소리를 우리는 조케역이는데 미국 어떤 촌에서는 시끄러워 잠못잔다고 밤중에 우는 닭이잇스면 그주인에게 벌금을 물린대요.

(글그림 방한수)

長篇小說

愚氓 【169】

朴泰遠 書 / 洪祐伯 作

슬픈사람(1)

오월의 하늘이 한껏 맑은, 어느 토요일 오후다。경성우편국 정문을 경쾌한 걸음걸이로 걸어나오는 한 젊은 사나이가 잇섯다。

어데지 모르게 역시 시굴티가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유행을 쪼친 양복을번듯하게 입은 모양하고, 모사압챙을 멋지게 내려 쓴 그러한 것이 서울 거리우에 그다지서툴러 보이지는 아햇다。

그는 문을 나서자, 생각난듯이 고개를 돌려 우편국 시계를 치어다 보고,

(다섯시 철분전?……)

입안말로 중얼거린 다음, 잠깐 무엇을 생각하다가 마침내 저혼자 고개를 끄떡이고 본정입구를 향하여 두어간통이나걸어가는것을

『아ー니 이거 동오 아닌가?……』

허청난 소리로 이러케 등뒤에서 부르는 사나이가 잇다。

놀라서 고개를 홱 돌려 살피려니까 무섭게 노ー란 망태업는 얼굴 비치며 퀭한 눈이며 고약때 무든 두루마기 주제하며 서로 시골서 보고 헤진지가 햇수로 이년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뜻바게 신곱보가 틀림 업섯다 순간에 장동오는

(아차!)

하고 속으로 부르지지 안흘수가 업섯다。

그래도 이제는 이미 촌구석에서 담배나 왜떡、나부랭이를 팔릴 사람이 아닌 『백백교간부』 근동위 장동오는 직시얼굴에 반가운 기색조차 떠우고

『아ー니、신서방、이거참 얼마만이시까아?』

근래 와서는 서울말로 제법격에 맛게 입에 오르는것을、그는 짐짓 본고장 사투리까지 써가며 그곳에 신곱보와 마주 대하야 섯다。

『아、그래、동오、즐곳 서울잇섯나?』

신곱보는 이미 서울의 청년신사가 되어버린 장동오의 행색을 얼마던지 훌터보며、입가에 뜻모를 우슴을 쉬사이 업시 떠우고 못는다。

『네ー。헌데、신서방은 웬일이시까아? 서울엔 언제 올라오섯나요!』

『한 달포되지。헌데、낸、자네안테 조용이 좀 물을 말잇네만、지금 짬이 잇겟나?……』

『짬이야 잇소만、하실 말슴이란 무어신가요?』

장동오는 그러케 되무르면서도 번개 가티 제누이 장동사를 생각하고 매부 맹서방을생각하고

(이신곱보가 애기 잇다는게필시 그일에 편한거겟지……)

그러케 단바 짐작이 서고보니까 때마침 한창사람의 왕내가 번잡한시간에 이러케 본정입구에가 우선 차림차림부터서 루묘하게 대조가 되는 자기네 두사람이 서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것이 안되엿다。

더구나 신곱보의 입에서 어떠한 거북스러운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ーー생각하면 두려운것은 남들의 이목이엇다。

그래、장동오는

『저ー、별 애기가 아니라……』

하고 신곱보가 말을 끄내려는것을

『무슨 말씀인진 모르겟씨다만은 하여튼 참 오래간만에신서방을 이러케 만나뵈러에노상에서 이거 됏시까아? 어데 조용한데루 가서 약주나 한잔 하시면서 들읍시다용.』

한잔 하자는 말에 신곱보는 금시에 해버러지는 입을 어찌하지 못하며

『아、그 바뿐 사람을 내가이러지 안나?』

그래도 인사성 잇게 그러한 말을 한마디 하여보고는 다음은 잠자코 그의뒤를따라섯다。

장동오가 신곱보를 데리고간 곳은 명치정 끌목안 조고마한 청요리집이다。

이층으로 올라가 구석진 방에가 자리를 잡고 안저、면접시 음식과 백알 한근을 시킨 다음에 그가 주머니에서 꾀죤갑을 끄내 락자우에 노코 우선 제가 한대 피어 물엇슬때 신곱보는 저도 담배갑스로 손을 내밀며

『자네 그래 매부 소식 들엇나?』

하고 그 한마디 말을 장동오가 대체 어떠케 밧나?ーー동정을 살폇다。

ヘチマコロン
헤치마코론

직히라！資源
버리지말라容器

素肌의時代가와서 日本人의살결을爲하야 日本의科學이 나은化粧水ヘチマコロン은 最新美容의中心이되엿다！

★

姉妹品ヘチマクリーム은 그融解와、퍼지는것과、香氣더구나新鮮한感觸인點으로歡迎밧고잇습니다

40전·63전·95전

ヘチマクリーム
헤치마크림
40·63·85전

本舖東京 株式會社 近源商店

100CG/1

晩秋從錄 天壽院 (五)

湖岩

松都城東十里 吹笛峰下에 잇는天壽院址는 高麗때에 賓客을 送迎하던名所이다。

晴月을 보름日아침 부슬거리는 細雨를 무릅쓰고 나오자서 이由緖기픈 天壽院터를 차저섯다。

일즉松都에 滯留이나 滯在하면서도 往訪하지 못햇던곳을 겨우 二日동안旅行에 가보게된것은 참말快事이엿다。

實情을 自白하면 食前에 아다리로 散步가다가 거기서 天壽院터가 멀지안타고 하기에 그냥거더니 往還에四五時間이 걸려서울에서 오엿다。

李仁老의破閑集을보면 天壽院은 漢陽이 뒤에 남어서고 平川이 아페흐르고 野徑와松杉이 鬱蒼하야 그새로 丹楹畫閣이 半空에솟아 隱映하게 되엿다。

天壽院은 李賓의 雪로해서 저작부터 國外에 이름이 돌면고 [illegible]로해서 오늘날도 世間에 이름이 傳하거니와 高麗때 이곳에서 迎送하는 客으로해서 얼마나 歡喜의 우슴을 띄웟스며 惜別의 눈물을 지윗슬가。公子王孫의 笙歌소리가 용키고 佳人離婦의 殘翠香氣가 어리운 이風流的名所는 지금도 살펴보면 옹장 말근국사취라도 남어잇슬것가티 생각켯다。

이러케 내假想에 아롱다운 天壽院을그리면서 어느덧 十里길을다와서 長湍交界인 吹笛橋를건너서 吹笛峰下에 다달엇다。

吹笛橋吹笛峰이란名稱만해도 詩的이어서 北쪽은 멀리 天磨連峰이 屛風처럼 둘럿고 南쪽은 萬壽, 把谷諸山이 소삿스며 물이 屈曲되고계천도依然히흐른다。예날과가치 [illegible] 한 [illegible]에게 天壽院址를 물으니 [illegible] 一帶田畔에 오롯이 天壽寺는[illegible] 지금도田中에서 破瓦를 만히發見하다고 하엿다。그리고 그는自己집에 노인큰 支柱石을 가르처 이것이 高이五尺 廣은 三尺가량되고 [illegible]同寺의 遺物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엇다。

天壽院址는 俗稱「원터」가 傳佳한다。

東쪽으로 저멀리 [illegible]의 [illegible]에는 [illegible]의 [illegible]한바 그안에十五六戶의農家가 居住한다。

[illegible]에는 [illegible]의古蹟인 [illegible]伏橋가잇는데 近年새로 架設하고 天壽橋라고 改稱하엿다。나는거기서 吹笛橋東에 大岩石을 방금떼려내여 自然의風致를 毁損하고잇는것을보앗다。이처럼名所古蹟에對하야 흥운新名稱을 부치며 또흥운舊面目을 維持하지못하게되든은 적이遺憾이다。

高麗의詩人騷客치고서 이 天壽院에 [illegible]을머물지안흔이가업게쯤되엇거만 [illegible]에 [illegible]의初期에 이르러서는 벌써荒廢하게되엇스니 이는 [illegible]을 보아도 알것이다。

[illegible]에잇서서드 이 원터에 각금 [illegible]을 지엿다 [illegible]엿다햇스며 行人過客의懷古的吟咏도만핫섯다。

天壽院은 古今을 通하야 「로맨스」가 수두한 中에도 一代名妓[illegible]의 長安歌客[illegible] 士宗을 맛나 [illegible]을 그리던 그逸話의토막이 가장 滋味잇다。

그럽가튼 아름다운山川을 舞臺로하야 [illegible]의 喜悲劇을 버저내인 이名所가 어찌면 오늘날이러케도 荒廢해젓슬가。

天壽院터를보고 도라올새 내마음에成住壞空의 無常한 感이 일층더 기퍼젓다。

「大地」의 世界性

노벨賞作家「펄·벅」에對하야 (上)

林和

× 今年度 「노ー벨」賞이 「펄·벅」에게 도라갓다 이 「뉴ー쓰」는 어떤意味에서이고 우리에 刺戟的인話題다。爲先 所謂의여러가지事情으로 西歐의形便을 알 機會가 적어진 우리로서 西歐人의 世界文學觀을 窺知할 一機會도 될수잇는것이고 反面으로 우리들이 比較的 平凡히 讀了해버린 作品이 果然人氣以上의 어떤價値를 가젓는가를 反省할 조흔 機會도 되지안는가 한다。

問題는 如何튼間에 「大地」란 小說에 걸녀잇는 것이다。내自身이 「大地」란小說以外에 「펄·벅」이란作家에게 對하야 白紙란理由도 잇슬지 모르나 다른 世界的 作家와 달라 「펄·벅」이란 作家는 「大地」란 小說을 떼여 노코면 그다지 世界的으로 問題될만한 思想이라든가 或은 文學的文化的業績을 쌓흔사람이라곤 말하기 어려운것이다。

例하면 「지ー드」라든가 「로ー마ン·롤랑」이라든가 乃至는 「마르로ー」가튼 사람들은 그들의 代表作이라고하는 몃개의作品을 빼내대도 人間으로서 一定한業績을 가젓다고 할수잇스며 無形의思想을 通하야 世界人이 그들과 關係하고잇다고 볼수가잇는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作品이란는것도 그들의 人間이나 思想과 獨立하야 世界文學史우에 一定한 位置를 要求할수잇고, 同時에 現代의 精神史上 一定한階段의 標識로서의 價値와意義를가지고 잇다고 評價할수가 잇다 그러나 「펄·벅」은 小說 「大地」의 作者인以外에 如何한個人的 業績으로도 思想으로도現代人에게 世界的으로 評價될만한 意義를 한사람은 아닌것갓다。

우선 例이지만 그의 小說에 比하야 그의傳記나 現在生活이 도무지 알녀지지안은 事實을보아도 這間의일을 짐작할수가잇는것이다

이런意味에서 今番「노ー벨」賞 授賞은若干世人의 意表를나온感이 不無한 同時에 至極히 平凡한 事事라고 생각할수가잇다。

本來「노ー벨」賞이란 무슨文學史的評價나 批評的인 權威를 가젓다는니보다 極히 「포퓨ー라ー」한意味에서 人類文化에 功獻한 사람을 골라 榮譽을 讚揚하고 名譽를 받어주는데 그저 實로 翰林院的인 性質에 것이라 나히도 젊고 一九三一年以來로 몃개小說을 써 人氣를 널펏데不過한 一米國女子를 골라다는것은 分明히 異例라 말수가 잇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벌써이만치 世界에 人氣를爲하고 잇는 作家, 한편에 그것이 通俗作家가아닌!에게 그功績을 認定한다는것도 理에 어긋나는일이 아니라고 말할수도잇다。

그러나 한가지 斷言할수잇는 것은 現在의 緊張한 世界史의 局面가운데 荒唐하거나를 달리고잇는 支那를 取材로한 小說의 作者가아니엇다면 「펄·벅」의 人氣으로는 「노ー벨」賞이 차지되지안엇슬것이란것이다。東洋의 讀書社會만 하드래도 萬一 支那를 取材로하지 안엇드라면 「大地」 以上의 大衆性과 藝術性을 아울러 가젓다하드라도 決코 「大地」 만한 人氣를博할수는업섯슬것이다。

이런意味에서 「펄·벅」의 作家로서의 世界性이나 「大地」의小說가운데 描寫된現實世界性이라 할수잇다。

世界史的局面에 登場한地域만에 相當한 世界的文學의 土壤이 잇다고나 할가? 이것은 우리가 過去에 잇서 여러번 되푸리해온 文學에잇서 所謂典型性을 再認識하는 한아의 基點이 될수가 잇는것이다。性格의典型性, 環境의典型性, 그러고 生活의 典型性, 運命의 典型性 乃至는 地域과 歷史의 典型性이라고 까지 널펴서 理解할수가 잇다。그 性格가운데 다른사람의 運命과 그環境가운데 다른環境의 精神을 그運命가운데 世界史的 運命의 象徵을 發見할수잇슬때만 우리는 비로서 典型性이란 말을 쓴다。

現在 支那에는 우리東洋人만이 아니라 實로 西歐人의運命과 重要한 關聯이 聯絡되어잇고 世界史의運命의 決定的인 매듭의 한알맹이고 풀리고 얽키는 分岐過程이 進行되고 잇다 할수가잇다。

世界思想과 世界文化는 언제나 이러한條件과 이러한環境을 土壤으로하야맹그러지는法이다。

그러나 「大地」를 問題삼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큰 疑問으로 남는것은 엇재서 그런文學을 支那人自身이나 或은 東洋人이 아니고 一西洋人의 손으로 創作되지안코 一西洋人의 손에서 맹그러젓느냐 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東洋人 即 東洋의 運命을 世界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잇서 「노ー벨」賞이 어느사람에게授與되엇느냐 하는데 比하야 百倍나 더큰問題다。

學藝小抄

學藝社移轉 市內齋洞町一四六番地에 잇는 學藝社는 지난번 市內慶雲町一〇〇番地로 移轉햇는데 電話는光化門一七二七番이라고한다。

新刊評

稀貴한 興奮

新人短篇集讀後感

金南天

昨今年間에全集도 여러種類가 나고 그바게文藝出版物도 類例업시 만히나와다。이것은모두 기쁜일이며 조흔일이엿다。

그러나 그 大部分은 묵은 在庫品의 整理엿다。우리들이 攝取할때로 攝取해 버린것 그러라고 그다지 古典的價値가 잇는것도 아닌것——이런것들이만허서 全集熱과 出版景氣에 휩쓸려서 玉石이 混同된채로 世上에 나왓다고 보는것이 거즛업는 실상이다。그러므로 그러케 떠들어대는 宣傳文과 廣告文을 보아도 「옹 이게 지금나오나」하或은 「이런作品이 잇섯섯나」하는 程度로 別般 興味도 動하지 안코 정작 冊을 對하야도 鮮明한 感興이 나지안는다。

일거가면서 漸漸 緊張의 더해감을 늣긴다든가 밤이라도 새이고 시픈 그런 興奮은 좀처럼 맛볼수가 업섯다。그것은 어째서인가? 在庫品이요 묵어나는 「스톡」이요 우리가 벌써 지내온 停車場이기때문이다。한번 펼처보아 지내날을 돌아 살펴 必要는 잇스나 그것이 안겨무절을 못할지경으로 아프로 채쭉질해주는 迫進力가트것은 잇슬려이업다。

이제 朝鮮日報出版部刊行의新撰文學全集의 一回配本으로 新人短篇集을 바더서 읽고안젓스니, 이러는 나의생각이 暫時間에 一掃됨을 느끼엿다。모두쟁쟁한 우리文學의 새로운 要素다。그要素가 全部 내 口味에 맛는다던가、全部를 그대로 發展시켜야만 된다던가한다면 그건 勿論보탬이다。그러나 우리 在庫品에는 업는것 지내온 停車場에서는 못 보앗든것—이런것이 저처럼 特色잇는財物을 兩手에 노피들고 熱烈하게 殺到[illegible]을 主張하고잇다。적거나 크거나 모두 하나의 저만이 가질수 잇는世界를 닐고 그들로文壇과 [illegible]을 向하야 [illegible]하고잇다。나는 이것을 일그면서 우리文學의 [illegible]을 생각해보앗다。[illegible]의 柏果나 [illegible]가 [illegible] 要素를 [illegible]하야다。玄[illegible] 鄭飛石 朴魯甲 許俊 金沼葉 金[illegible]漢 [illegible]白[illegible] 金[illegible]·崔[illegible] 玄[illegible] 朴榮濬—이러케이름만 적어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illegible]하고 [illegible]는 [illegible]한 [illegible]이지를 [illegible]하지아니한가。紙面이업서 하나하나 [illegible]을 적지못함이 遺憾이나 어쨋든 이지음 [illegible]中에서 가장 드물게 노픈感興을준冊이다。

科學漫筆

美人譚 ②

鄭槿陽

얼골의 形狀은 지금으로 조흐며 所謂美人型이라고 옛날부터 일커러 오는바이요 이마는 넓버야하며 조분이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답답한印象을 주고 덜은 바러서는 아니되고 叡智의標識으로서 多少나와야한다。

毛髮은 色이나 量이나 形狀이 그리問題는 되지안는 模樣이다。色은 옛날부터 東洋서는 검은色이 尊重되여 왓지마는 요지음에 와서는 일부러 부로ー드色으로 染色하는분들도잇다。그러나이것은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리아름답다고는 볼수가업다。髮은만코便이 조타。그러나 요새와서 新髮이란것이 流行하게되고 쪽도 옛날과가티 크게必要를 느끼지 안케되니 量이그다지 만치안터도 美를 損하게는 되지아니하야다。形狀은 옛날과가티 밀기름으로 이마에딱 부치는 式은 벌써 우리의 眼覺을 슬컷게 할뿐이고 또 조금前까지 流行하던 머리 뒤틀노끄는 所謂 「다까머리」도 形跡을 감추운듯하다。요새는 所謂 「파ー마넨트」의 全盛時代라고 볼것이니 이것이 또한 映畫의 影響임은 再言을 要치안는다。

머리한편 빗는데 十圓 二十圓式 드린다면 옛老人들은 자못 눈살을 찌푸리지 안흘수업겟다。何如間 이머리의 形狀이 野卑에 흐러지지 안는 限 度를 넘치지 안는 限 보기 실치안은 形狀이다。고수머리가 騷得를 밧든날에 比하면 자못隔世之感이 잇다 아니 할수업다。

눈섭은 예나 只今이나 가눌고 긴 柳眉型이 조타。이것도 「허리웃드」型이다。눈섭을 그리는 術은 예로부터 잇슨까지 翻譯된 모양이다。

눈은 東洋사람은 가늘고 눈초리가 우으로 向하는 수가 만으나 아무래도 西洋女優에서보는 동굴고 큰 눈이 조타。눈섭은 길어야 하고 눈꺼풀은 脂肪이 多少만허 좀두터워 눈瞳子로 하야금 늘 潤澤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코는 좁고 노파야 조코 所謂 매부리코는 落第요 입은적은것이勿論上等이나 좀커도 잘 다무러서야한다。

입이 잘 다무러지지 안는者는 우리에게 快感을 줄수가업다。그리고 입술은 多少두터운것이 自然的이요 朱唇과 皓齒와의 對照가 確然하여야 쓴다。

이(齒)는 그리 크지안코 히고 整頓되여야하고 입을오뭇슬때넘어만히 露出되여서는 아니된다。자못 不愉快한 늣김을주기때문이다。

빼드러니는 때로 愛嬌를돕는수도 업는배아니로되 美人의條件일수는 업다。

귀는 이것이 얼골의가운데안젓다면 큰問題를 이르킬것이나 多幸히 여페 天然스레부터잇기때문에 그리큰問題는 되지안는다 그러나 넘어 얼골에 比해 적은귀 큰귀 넘어버룩한 귀도 問題이다 多少 福스러운 늣김을주는귀가조타。

以上 大部分 얼골에 限해서만 이야기햇지만은 勿論 女性美라는게 얼골에만 限한게아님은勿論 도리어 몸全體에 均齊와 魅力을 가저와야만 하는것은 再言을 要하지안는다。

臀部로 腰部로 胸으로 흘는 側面線 乳房으로 下腹部로의부드러운 曲線은 또한 넘어나 人口에 膾炙된바이니 略하기는하되 事實上 女性美로서의 最高峰은 最高의 魅力은 여기求하지 안흘수업다。嗚呼! 調和된 脂肪의 偉大한힘이어!!

畫集出版의 嚆矢

吳之湖·金周經二人畫集評

金瑢俊

畫家의 할일이 그림을 그리는것만이 全部가 아니요 展覽會를 여는것만이 또한 全部가 아니요 이밧게 自己의 足跡을 畫集으로서 永遠히 남긴다는重要한 할일이 또한개 남어잇는것이다。

사람의 性格에따라서는 한平生 그림을 그리는것만으로 榮을삼는이도 잇겟고 때때로 展覽會를 여는것이 滿足하는이도 잇겟고 하겟지만은 무릇 가장 現代的認識을가진 畫家이면 반드시 畫集의出版에까지 이르러서비로소 作家로서의할일을 다하엿다고 볼수도 잇슬것이다。그만치 그림의 活動範圍가 옛날과 달러서現代의 印刷文化와 合流치아니치못하게쯤 世態에잇는것이다。

그러나 朝鮮이란땅이 이상야릇한곳이여서 美術家는 해마다 느러가는反面에 發展하는狀況은 正反對의現象을 이루고 잇서서 오늘날 畫集한卷 出版되지못하엿다함은 오로지 朝鮮라고밧게 解釋할수업섯다。

이때에 어느一角에서 용소슴치듯 튀여오른 두畫家가 보아라듯이 堂堂한畫集한卷을 내노탓스니 우리는 이畫集의 內容을 살피기前에 맨먼저 之湖 周經두분의아페 무릅을 꿀코 절하고만 한 感激을 느끼는것이다。

朝鮮이 아니라면 畫集出版쯤 敢히 할것도 아모것도업다。오래이 잇는일이요 畫家이면 普通할수잇는일이다。그러나、이것이 朝鮮이기때문에 더구나 西洋美術을 사드리지 數十年을 지낸 오늘날 오히려畫集한卷이더불수업는 朝鮮이기때문에 맛당히 하여야할일을 못하게 될이즈은朝鮮畫界이기때문에 이畫集의出現은 더한層새롭고 더한번 그들의 勇氣를 놀랍게 생각하게되는것이다。이것이 처번試驗이니만치 반드시 完璧을期하엿다고는당초부터 밋지안는다。그러나처음試驗으로서는 엄청나게 成功하엿다는點이 더군다나 이冊을빗나게하는 所以일것이다。

이畫集을對할때 먼저强烈하게 느겨진것은 之湖、周經두분의그 敦篤한友誼 그勇敢한 癖氣、그淑熟한畫風、그리고 그大膽한計畫에 놀라는同時에 沈潛한 朝鮮畫壇에 한개鐵槌를 던진듯한 히一大痛快事라 하지안흘수업다

之湖氏의 溫雅한畫風은 近作에 어를수록 明朗化하면서 차츰點描派風으로 强調되여감이 滋味스러 將來를 約束하여주는듯한가우며 周經氏의 沈着한 畫風여 또한 輕快한步調로 散步하는 손님을 對하는듯 반가웁다。

이中에서 特히 印象기픈것은之湖氏의 「시골少女」이作品은 確實히 朝鮮의少女임을 누구보고던지 자랑하고 십다。周經氏의 「봄」 「婦女野遊圖」또한 重要한 作品일것이다。그리고 全篇을通한 豪華로운 裝飾이 누구던지 한번 보려주한 出版物中의 豪華版일것이다。

裝幀이 精新하고 印刷가精麗하며 全篇을 原色版으로 꾸민 努力이라든지 더구나 條理整然한 두분의藝術論은 美의本質을 잘究明하고 藝術의 形式과內容을 明確한論調로서 規定하야可히 錦上添花의格을 어루엇스니 이畫集이야말로 畫學徒는勿論一般愛畫家는 반드시 一部를座右에 備置할것이라 밋는다

漢詩

題 新涼 押 人 桐岡考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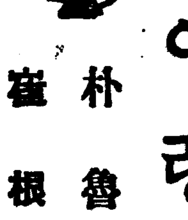
三等之五 慶南晉州邑明治町 小岡 姜仲鈺

梧葉初零豆莢新·新涼恰慰病炎身·萬樹殘陽蟬靜後·一天明月雁來辰·颯爽思疑離玖海·喜歡心似見情人·飜嫌換節還多感·獨自吟詩獨自珍

新人短篇

이랑이 (三)

朴魯甲 作 · 崔根培 畫



일을 가리 조하 해슬 뿐인가! 눈꼽까지 가티 흘려 주는 손주딸 어랑을 할머니는더욱 더욱 귀여햇다。

「우리 이랑은 가난하여도 몸튼튼한 사랑을 어더주지、돈만코 몸 약한것은 소용 업다。우리 이랑이 시집을가서 잘 사는것을 보아야 죽어도 내눈이 감길텐데!」

할머니는 이랑의 혼인 이야기가 집안에 떠돌면 이러케당신의 수장을 내세우고는 봉선화가티 피는 이랑의 얼골을바겨보앗다。

가난해도 몸 튼튼한 숫주사외를 골라다는것은 돈이 업혼타는 말은 아니엇스리라! 너무도 약한 몸으로 너무도 일직 세상을떠난 남편、이랑의 할아버지를 생각코 한 말이 아니엇든가!

이랑의 나이 열여섯살이 되든해 봄 이랑의 혼인 이야기는 버쩍 머리를을 처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엿다。

한편은 문벌도조코 살기도 넉넉하고 실랑 감도 똑똑하것다 별로 나무랠 것이 업것스나 실랑 감의 몸이 좀 약하다는 이유로 이랑의 할머니는 단연 거절을 하엿다。

한 곳은 가난은 하나 문벌도 조코 첫재로 실랑 감이큰큰 하야 감기약 한첩 먹을겻갓지 안타는 이유로 대번에 이랑 할머니는 뜻을기우렷다。

할머니는 맛당하다고 하엿스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난한 것이 아여 맛당치 안흔 모양이엿다。

「젊은 것들이 몸만 튼튼 하면 두내외 마주잡고 나서서 밧 품을 팔고 논 품을 팔기로니 굶어야 죽을래더냐! 나는 면면 약질 여자로 태워나 홀어미 살림을 해것 마는 남 한 노릇 내가 못한게 무어냐?」

이것이 첫재로 몸만 튼튼하면 상관업다는 할머니의 말이요 그래도 그러치 안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이엿스나 돈 업는 사외 돈잇는장인이 도아주지 안는다는 법 잇스랴는 이 세상풍습을 흐자반대하여 생각이 틀엿는지 어머니가 모은 재산 어머니가 꿀든 손주 사외 조곰 주기로 내미안 할래드나 생각이 틀엇든지 별로 적적한바대 이른이업서 어랑의 혼인은결국 이랑할머니의 마음대로 되고 말게되엿다。

이랑 또한 편이 별로 갈리잔흔 편을 새로 갈타 편을를 수도 업는 노릇이므로、물고의 송사리떼 처럼 몰려 가는대로 가치 몰려 가는 수밧게는 별수가 업섯다。

시집을 안간다면 몰라도、그러케는 일직 생각 해본 일이 업는것。시집을 가야만 옴바에는 도장 기피 들어 안저서 미들이는 어머니、아버지、할머니박게 업스니 그들의공론대로조는 도리 박게에 업섯다。

저도 저의 의견을 말슴 하오리다。그럿사온데! 하고 이랑은 자기 일에 자기도 한목 들어 보앗자、코로도 대답을 누가 해줄 때가 아니엿다。

봄에 시작된 혼인 이야기가 여름에야 겻이 낫다。

실랑될 황소년의 사주가 오는날 황소년의 사진도 한장 가치 왓다。나이는 열입곱 박게 안되엇다고 하나 얼골로 보아서는 유울 유울 하고서도 품런게 숙성도 하여 보엿다。

이 황소년의 사진을 보고 집안 사람들은 다 칭찬을 하엿당 아버지야 물론 직접 관선을 하고 정한 노릇이니 다시 물어볼것도 업고、어머니느 여간 조하하지 안햇다。

할머니는 이 사진을 보고 보고 한뒤에 어랑에게 불러주며 잘 두라고 하엿다。

이랑은 이 사진을 남 보매는 자기 손그릇에 기피 두는체하고 실상은 피치에 너무어다가 조용한 틈을타 하루도멋번식 보고는 또 보고 보고하엿다。

전에는 집안이 너무 적적하면 언짠코 동리 마누라들이놀러 오는게 실심지 안코 조터니 그런게귀찬케생각이들엇다。보는 사람이 업고 조용한때면 사진을 보자는 알뜰한 생각이 아니엿든가!

살은 實例

갑싸고 곳난는것이 저를살려주엇습니다

(咸南) 朴成龍

…早老하야 생활의 곤난파상우니 나의半生은 평탄하고 재미란도모지 맛보지 못하엿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病院에 거듭다닌다는것은 참으로 청천벽력이엿습니다 집안의 형편도 형편이러니와 나의신세로서 이병에걸린것은 후회하자니 것잡을수업는 길운마음에 빠진것입니다 病院에는 갈수업는형편이라 前에들치지안은 신문자지에서 良藥을 차저내기로결심하엿습니다 삿삿치뒤저 一一히 읽어보앗스나 모다 그럴듯하야 甲乙을 가릴수업스니 길일혼 병아리입니다 처음돈으로 엇더케하면根治를 바랄수잇스랴! 藥고르기에방황하다가 선뜻 눈에 띄인것이 부라오겐고ー루이엇습니다 說明文을 읽어내려가는中에 어느듯 나의病이나은 感이생겻습니다 그만치 설명이 알기쉽게 학문으로다 실지로다 정당하다는글이 나에게 재신을만드러주엇입니다

最初로치후다 하고 겐고ー루一號와二號의中병을주문햇습니다 한두번치료에 숨엇든고름이 쏘다저 나오고 오줌도 차차맑아지며 고통도업서저서 다시금健강체로되게되엿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집에서 곳치게된것도 오로지 나의용의주도하야 현된약에속지안코 한번에겐고ー루를 골나낸 덕택이며 귀하의친절하신 지도에의한것이라고 밋습니다

斷念하엿든 慢性淋疾을곳치고서

(大邱) 金、星茂

(前略) 무리해가 淋病이란 나지안는病이라고 생각하야 일시적치료만으로 그럭저럭 지난지 數年이되니다 그러나 근래에들어서 친구들의 모임좌석에서 혼히 근치되엇다는말이、나오게되니 남의말은 신용안하는 내나새이지만 다시금 活氣를엇고자 친구를 차저 무르니 그것이 곳 貴社의 「겐고ー룬」이엿습니다 반신반의로 치료를 시작햇습니다

사용한에도 조금도 불쾌 불편을 모르겟고 아조순순이 치료를 계속中 전에소비된 몃十분지一의 金額박게 안썻는데 病은 거진나은듯하므로 깃븜에넘치는 바에 [illegible]그後의 病勢를觀察하야 지도를바더가면서 一兩치료에 귀하셋습니다 인생四十에 각가운이몸에 새희망 깃븜을 엇는날도업마나남지안엇게지요(後略)

이重大한時局에꼭

림질을곳처야될여러분

004114

百發百中으로根治되는二重殺菌의新發明治療法이 생겻습니다

지금까지 수만은 림질약이 생겨스나 完治率이 적엇든것은 엇더한理由냐하면、첫재로서 환자께서 치료약과 치료법의 선택을 잘못하신것입니다 즉 림질의 병원균이 男女의 뇨도조직에 번식 들어잇는 탓인것을 똑똑히 깨닷지못하신 까닭입니다。그러므로 그곳에잇는 병균을죽이고 홍집을 곳치라고 먹는약을 복용하시고계신분이 만흐나 배속을 돌아서야간의 약기운이 오줌에섞겨 그곳을 지내게되는 內服藥의작용으로는 죽기에는너무도 굿세인병균이며 알콜기에는 너무도업청니게 큰홍집이생겨잇기때문에 복약할사이에는 좀병세가 개인듯하다가는약만끄치면또다시 再發되는 이미 여러분께서 경험하고게신事實일것입니다。

그러면 엇더케해야 속히 림질은근치되느냐하면 엇더케한것설파함께 병세에따라 상당한 기한을두는수도잇스나 權威잇는 專門病院의 치료를 바더야됩니다。즉병세가변하는데따라 치료약의성질을 조합케되는때문에 더욱유효하오나 만일 病院에 못가시는 사정이게신분은 信用잇는 醫師專門藥「부라오겐고ー루」의 二重殺菌療法(이중살균료법)으로치료하시면 病院치료와 똑가른효과를 어더저 속히根治됩니다。즉 직접 병회근인 환부에 약하방울을너면 가신듯이 병세가 낫어가는 약인데 더구나 지금까지의 치료제에서는볼수업는변해가는 병균의성질과 병세에맛게한 치료법—두가지약을쓰는—이강구되어잇는 만큼百發百中으로 根治됩니다

엇재서 二重殺菌을 해야만 되는가

「부라오겐고ー루」는 급성인분이나 만성된분이나 「一號」와 「二號」를 계속하여서 치료하서야되나니 그理由는먼저말삼드린바와가티변화하는병세에맛도록 한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기쉽게말삼드리자면 「一號」 약성질과 「二號」 약성질을 가티쓰면 결국 재래의국소약(局所藥)처럼 단일의성능박게내지못함으로 반듯이 「一號」로 병세를 다스르고 「二號」로 악화케하는 二重殺菌作用이라야만 림질을 단시일에 근치식히게되오니 의학계에서도이것을중명하고잇는바입니다

약하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림질근치약 「부라오겐고ー루」의 약가는 各號가同一하오니 복용약…一圓九十錢、十七日分…三圓八十錢이며 본보에독자에한하야 송료사십칠전을 본사에서 부담하고대금이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

用紙하시는대로『림질자연치료』선」를거저드립니다

K-208

精力增進 ブルトーゼ

補血强壯 ホルモン 造血アウト

ブルトーゼ 부루도제

各帝大病院常備藥

精力增強 ブルトーゼ · 神經衰弱 アルゼンブルトーゼ · 腎臟病 ヨードブルトーゼ · 健胃強壯 キナブルトーゼ · 肺結核 アゲヤコールブルトーゼ · 安產強壯 キオブルトーゼ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藤澤藥品

衛生と美容のために

クラブ 美の素 石鹼

구라부

皮膚의健康을增進한다

優秀한殺菌性能을자랑하는 飽和脂肪酸의크림狀의細胞가 毛孔속에서 汚垢를淸淨化하는美容과衛生에不可缺의石鹼입니다……

S1

雜誌王'朝光'送年號今日顯身!!

各界一年間總決算

歲色이將暮、物換星移

極東、歐洲의政局과스포ー츠의今年

文學、演劇、映畫의動態如何

일년이란 세월이 가고 오는것이 례사의 현과정에 불과하다면 별로 이상할것도 업지만 사람은 하로와 한달과 한해가가고 옴에따라 거기생각하는것이나 계획하는것이 다시 새로워지는것입니다 이제 한창독자대중의 참된 동모로써의 「朝光」은 이번십이월송년을 마지하여각계일년간총결산(各界一年間總決算)호를 베어게 되엿습니다

생각하면 금년일년은 더욱의의기픈바가 만흔데 지나사변의 발전과 아울러 국내국외로 크게 진전이되엿습니다 그리하야 시사편(時事篇)에잇서서는 「極東政界의 一年」을 李甲燮氏가쓰시고「歐洲政界의 一年」을 成仁基氏가 마터서 독특한 필치로 예리해부한관해설을 하엿습니다 이것으로써 복년히 금년의 일년간세계정국의 추세를알수잇게되엿습니다

그리고 사변과 즉접관계가잇는 「經濟界의 一年」을 경제론문에 잇서서 단연두각을 나타내여는 李健赫씨가 쓰셧습니다

이와가티 시사에대한 문제를 아ー조 명료하고 쉬웁게 쓴것은 조광十二월호의 독재이거니와 어것만 아니라 예술계(藝術界)에 잇서서는 창작계(創作界)일년을 白鐵씨가 쓰셧고 詩壇一年을金珖燮씨가 연극계(演劇界)의일년을 李曙鄕씨가 썻스며 영화계(映畫界)는徐光霽씨가 썻습니다

그리고 스포ー츠계일년을 운동기자로써 명성을 날리고잇는 高鳳梧씨가 썻습니다 어쳐럼 다채다단한 일년간의 조선각계의 현상을 눈아페보는 그림처럼 명료하고 독특하게 쓴것은 아마도 업슬것입니다 이「조광」송년호(送年號)하나 만손에들면 무엇이나 다잘할수 잇는 이러한읆으로이의만되는책이세상에 다시어되서 구해보겟습니까 가을도가고 겨울이와서 온돌방에 따듯히 불을 때시고 이조광을놓고 읽으시는것은 자미도 자미려니와 참말로 실의이잇는만큼 모ー도다 정신적양식이 될것입니다 조광은 어니때나 수십만 독자를위한 참된 동모가되고 지도자가되는 니망큼 가두에 나라난 아조광송년호를 집집마다 누구나 읽어주십시오

山水間에砲聲殷殷

蘇聯支那從軍記

그들은어떠케싸우고어떠케宣傳을하고잇나

敵軍敗戰의이慘景

때는 정히 선전전시대(宣傳戰時代)! 세계문화가 향상함을따라 무력전에서 경제전으로 경제전에서 선전전으로 올마왓다 일지사변에 잇서서 지나는 과연어떠한 종류의선전을하고잇는가? 장고봉사건에 잇서서 소련(蘇聯)은 무엇을 말하고잇는가? 패전의 패전을 거듭하는 항일지나(抗日支那)의 종군일기와(從軍日記)장고봉사건의 패전을 자군의 압도적승리라고 선전하는 적군로서아의 종군기는 과연 무엇을,말하고 무엇을선전하고잇는가. 보라! 장고봉사건에 출정하엿든 적군정치지도원(赤軍政治指導員)게오르기사즈이킨의 종군일기 그리고지나광주일보(廣州日報)기자 이자문(李自文)과 대미만보(大美晩報)기자 증유식(曾猶式) 이두사람손의으로 저록된 항일종군일기의 단말마적부르지즘을 들으라!

赤軍日記—이것은 로서아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에 게재되엿든것으로 이일기는 七月二十九日 심야로부터 시작된다。돌연 방공기를 요란히울리는 전투경보! 『전투준비는 되엿는가!』『되엿다!』『전진!』이리하야 적군 콤소몰원들은 베즈이ー먄나야고지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한다。『八月六日에는 어떠한일이 잇슬지라도 장고봉을 점령하라!』八月七日 마침내 우리들은 일본군과 마조섯다。캄캄한 어둠속이다。어디선가 바삭바삭하는소리가 들린다『누구냐?』하고 고함을 치는 아군의 감시병。침묵——그것은 일본군의 한그룹이다。어둠을타서 그들은 접근해온다。『총을들어라!』이리하야 수류탄과기관총의 란사란사 아아!무서운 늦끼타!

支那從軍記—八月十五日 정오이다 우리들은 목적지광주에도 달하엿다 『금일일본비행기가광수 서 상공에 나라나서 폭격과저 공비행을 단행하엿다!』일대의평야는 만면황금색의 벼이삭 어 주중에 농실농실 물려간다 어느때이면 이즘에 추수를하고 잇슬때이언데 금년만은 여거저기에 산재해잇는 란환의자취와 우마와가티도 죽어 너머진동포군의 희생자가 청청히쌔인그러 한 자래만이 아니가! 아아! 귀렴!다만 그제멘한어 쓸쓸히 남어잇을뿐이로구나! 두자여! 창밀지나군의 이쓸쓸한 부르지즘을 들으라! 거전에거런 란항의 비충기 천지를진동시키는 총포소리뿐이다 패장 장개석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구나알어야 新語解說

어번달 송년호 조광에는 新語解說欄을 두기로 햇다 이新語는 最近만드러저서 누구나알지못하는것만을 추려서 요령잇게 해설한것이니 三等大將이니 신문지에 무슨法案이니 별것을 다 자미잇고 알기쉽게 해설하엿다 이것을 읽지안흐면 상식에 떠러질것으로 누구나책상머리에 노아두고 사전처럼참고하기바란다

興味百%文壇閨秀錄과 朝鮮文壇卅年側面史

文壇思潮와함께흐르는文人의秘話

長長寒夜의好讀物

조선문학(朝鮮文學)의 새로운 개척은 벌써 삼십년의 세월이 흘러갓다 그동안 初創期로부터 지금까지 나고죽고한 文人의 數百을 헤이고 잇거니와 이호르는 세월과 함께 문단에는여러가지의 글을 쓰시는분들이자 기의경력을 이즈시가지가지의 예술적감흥을 적어노앗다호은면 소해 작고한이들도업는것은아니 지만그들이글을쓰고 인생을노래 하는동안에는 로ー맨쓰들도만타 이제 安夕影氏는 어조선문단창 설기로부터 지금까지 나려오는 각파 문단인들의 인생과예술은 말할것도업고 그들이 조아하고 슬퍼한일 또아름다운 사랑놀속 삭인얘기들까지 조금도 숨김업시 썻스니 이야말로 흥미진진 밤을 새워일거도 끗을 모를것이 다 그리고 金文輯氏의 「文壇閨秀錄」은 現文壇人의 夫人과 또 여류문인 이야기를 아조 자미 잇게 쓸것으로 이것도또한 적지안흔 흥미가잇는것이니 여기 등장된 여성이 수십여명에 달하야 누구나페이지를 넘기기에 그만정신이 팔릴 지경이다 과연 조광 송년호에 이두개만도 여간한 흥홍한것이 안이다

朝光送年號目次

★까치밥(表紙)……崔根培畫

(報畫)……趙澤元과金敏子의舞踊포ー즈 / 도라온安柄路 / 피아니스트金變內의포ー즈 / 스키여ー의이모저모

各界一年間總決算

極東政界의一年……李甲燮

歐洲政界의一年……成仁基

經濟界一年의回顧……李健赫

今年間의創作界槪觀……白鐵

戊寅詩壇槪觀……金珖燮

朝鮮映畫界總決算……徐光霽

演劇界의一年總決算……李曙鄕

戊寅年스포ー츠界……高鳳梧

★除夜隨想★

▲除夜의辯……金晋燮

▲除夜哀想……毛允淑

▲除夜低吟(卽興詩)……金岸曙

蘇支從軍記

赤軍日記赤軍政治指導員사즈이킨

陣中에서張鼓峰事件을본支那廣州日報李自文 支那大美晩報 曾猶式

李王職의雅樂公開演奏를듣고 桂貞植

第三回全朝鮮男女音樂콩클評 文學準

常識時事解說

S型工作機械

暴利取締令의改正

國民參政會란

蠢動하는西南派

파레스티나問題

링크制

三等大將이란것은

宗教團體法案

彈春界約

皮革使用制限

出版業으로大成한諸家의抱負

博文書舘의業績……A記者

永昌書舘의今日……B記者

德興書林의現狀……C記者

文壇閨秀錄……金文輯

—詩壇—

긴긴꿈●外一首……春園

秒●外一篇……金珖燮

港口●外一篇……林念仁

무덤……馬鳴

日曜日……李高麗

山家……金泰午

法定傳染病과避病院 醫學博士 鄭權陽

毒瘡症과瘙痒症

콩 트

生日……金東里

눈오는날밤……鄭飛石

當代風……金廷漢

家庭哲學……崔永秀

괴로운줄거움……韓仁澤

長命酒……朴香甲

每月人氣끄는 生六臣傳의評判

이번은梅月堂金時習篇

『生六臣中에 가장 이름이세상에 널리전하야 그生知의 총명은 孔子、濂洛의 妥豪을 가지고 絶世의 淸節은 伯夷叔齊를 凌駕하며 遯世佯狂의 態度는 殷의箕子보다 훨신 지나치고 詩에李杜와 文章에 韓柳와 書에 右軍과 畫에顧愷之를 兼한 外에 天文、地理、醫藥、卜筮、兵刑、讖財等을 無不能通하엿다는 大評判을 갓든 人物은 梅月堂金時習先生이다』

이것이 이번 朝光送年號에실린 車相瓚氏의 生六臣傳中의一人 金時習에對한 이야기의 첫머리다

世宗大王께서 그의 才名을드르시고 承政院으로 불러드려知申事 朴以昌에命하야 試才를하시는데 먼저 글을 지어되되 『童子之學은 白鶴이 舞靑空之末이라』하고 그對를 지으라하섯더니 그는 應口輒對로 『聖主之德은 黃龍이 翻碧海之中이란』하야 君臣上下가 모두크게 놀랏섯다、하거니와 어디닥이 계속되는 生六臣傳은 어번당엔더 욱자미잇는 金時習先生의 어야기가 심려讀者를 興奮케 하는 것이다

朝光送年號 定價四十錢

斷然異彩잇는 送年創作陣의偉容

이번에는 창작진이 아ー조 참신하게 되엿습니다 단편소설에 中堅作家 兪鎭午氏가 『痴情』이란자미잇는小說을썻고 探偵小說家 金來成氏가 유모어小說 戀文綺譚이란 자미잇는것을 썻고 新人으로 桂鎔默氏가 短篇小說靑春圖란 힘드린作品을썻습니다 그리고 長篇에能한 咸大勳氏가 長篇小說防波堤란것을 이번부터 처음으로連載케합니다 이처럼 小說陣에 各層을網羅한 强力陣이 어디잇겟습니까? 이소설네개만으로도 넉넉히 朝光送年號는 사야할 매력을갓고 잇는것입니다 속히 구하지안흐면이번엔 꼭絶版이될것이오니 미리미리 注文해주십시오

눈오는除夜에 人生航路도多難

눈오는 섣달그믐밤! 여기는 뭇업는 애조를 연상하게됩니다 除夜라하면 누구나 밤하늘에 눈과바람소리를 들으면서 뭇어지 에상적기분속에 눈길을 걸을것 입니다 이 눈길을 향하야 무한한 환상속에 거러가는두사람의 그림자가잇스니 하나는 눈속에哲學的명상에 빠지고 하나는 무엇인지 몰을것입니다

少年送年號 定價十錢 送料一錢

자미잇는 女性送年號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牧歌……石仁海

★史譚·生六臣傳(續)……車相瓚

★野談聖代逸話……金潽雲

名士漫問漫答

(第一問)世上의人類가모두업서진다면

(第二問)濟州島를하나때여준다면

(第三問)어머니와안해가同時에水中에빠젓을때

第二部

(第一問)矢標시키萬世이自己를嘲弄할때

笑할때

(第一問)只今遺言을한다면

(第二問)처음으로異性에게戀情을느끼것은

朝鮮文壇二十年側面史文壇潮流文人行狀……安夕影

▲漫文一家精神總動員……李龍潭

▲漫語航空漫話……李相睦

▲漫畫結婚二重奏……崔炳勳

▲漫談阿房樓……阿房樓主人

▲漫笑微笑室

▲讀者文藝募集

支那語講座(最終回)……張志暎

讀者文藝

강정이(短篇小說)……金德煥

푸른湖水……索丁香花

꽃배장수(콩트)……金俊鍋

들菊花(詩)……金畛玉

感傷(隨筆)……南漢生

完山八景(詩)……南宮世元

마음(詩)……金再貫

호미(詩)……姜秉淸

잇음의肖像(詩)……趙寅鉉

母性愛(詩)……金慶漢

茶房風景(詩)……鄭昭坡

별마음(詩)……崔銀漢

送年創作陣

短篇小說痴情(崔根培畫)……兪鎭午

短篇小說靑春圖(崔根培畫)桂鎔默

유ー모어小說戀文綺譚(金熊超畫)金來成

長篇小說防波堤鄭玄雄畫第一回咸大勳

●現代朝鮮文學全集

完成된이全集을누구나備置하시라

第一回配本 短篇小說集(上)

第二回配本 詩歌篇

第三回配本 短篇小說集(中)

第四回配本 隨筆紀行集

第五回配本 文藝評論集

第六回配本 短篇小說集(下)

第七回配本 戯曲集

每冊一圓二十錢送料廿二錢

一時拂 七圓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內容이充實한 新選文學全集

第一卷 文學讀本

第二卷 新人短篇集

第三卷 兒童文學集

第四卷 女流短篇集

定價 每冊 一圓二十錢 送料 二十二錢

一時拂 四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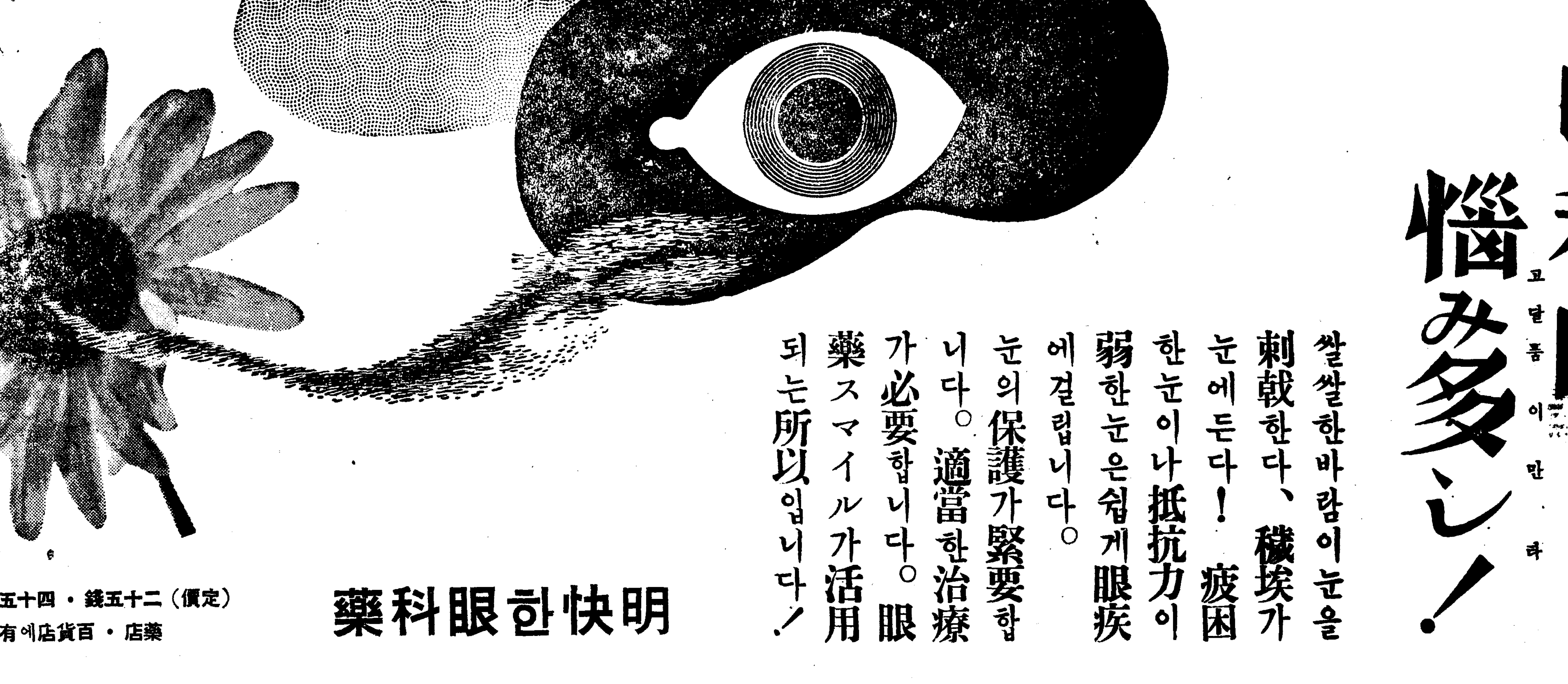
雜誌나單行本이나 注文은左記處로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電話本局②一一九一

△아름다운五色刷의朝光送年號表紙▽



晩秋.眼に惱み多し!

(만추 눈에 고달픔이 만타)

쌀쌀한바람이눈을刺戟한다、穢埃가눈에든다! 疲困한눈이나抵抗力이弱한눈은쉽게眼疾에걸립니다。눈의保護가緊要합니다。適當한治療가必要합니다。眼藥スマイル가活用되는所以입니다!

眼の充血 (눈의充血)

희시우가붉어저 充血하야작구 가렵던지、눈물이흐르던지、眼中이不快한때는 곳スマイル를二三回 滴點眼하십시요。눈이깨끗하고、充血이漸快해집니다。

はやり眼 (流行眼)

寒風과塵埃의刺戟으로、눈물이 끼고、充血이되고、눈에모래가드러간것가티거북한때는流行性結膜炎입니다。洗水로눈을씻고 一日數回、眼科藥スマイル를點眼하면漸次輕快해집니다。

たゞれ眼 (爛目)

눈씨울이빨하게짓물러서 아푸고가렵우며 눈씨울이不快하야견딜수업는眼病입니다。洗水로눈씨울의不潔物을 잘洗滌하고 スマイル를點眼하십시요。スマイル의殺菌收斂作用이 速히活動하야治癒되미빠르고 點眼後눈이爽快합니다。

其他疲勞眼、도리호ー무疲眼 星眼가튼데도スマイル는卓効가잇습니다。겨울外出에는 모조록常用하시요

明快한眼科藥

(定價)二十五錢·四十五錢

藥店·百貨店에有함

スマイル

스 마 일

總代理店 株式會社 玉置商店 東京·大阪

5-C-30

無智한生産者欺瞞 正租檢查에挾雜
農會技手某氏現場에서摘發 忠北道農會事件重視

【淸北支社發】얼마전 청주시내 회천정 정조검사장에서 금사원모는 아모것도 아지못하는 소사최모로하여금 정조를 검사케하야 일반의비난은 자못비등하엿섯는데 동사건에대하야 본보에 보도한바도잇섯스나 또다시 부정검사사건이 발생하야 농회당국에서도 사실을 극히 중대시하게되엿다한다 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충북도농회내정조공판장의 금사원은 자기와친분이잇는 상인에게대하야는 가령 이등의 정조이면삼등으로 삼등의것이면사등으로 검사하여주엇다고하는바 이것으로인하야 생산자는 정조한섬에 일원이상의 손해를보이게하고 잇다한다 그리고 어떠한심사인지 유내검사를할적조가 산견하여잇는데도불구하고조합에잇는 정조만 출창하여 검사하는터이게로 유내의 일반생산자는 대통이하 이르키고잇스며 검사를하지안하도 판게업는 나맥을 반출하려는 상인을보고 상사인지 두게하야그후검사할 필요가업스니 가저가라는등의 추태를 연출하고잇다는바 일반이밧고잇는 피해는자못심대하다고한다 이런사실이백일하에 폭로되게된 원인은 지난구일부터 충북도농회기수모씨가정조공판 상황을 조사하기위하야 전기현장에 출장하게되여 이와가튼 사실을 우연히 발각하엿다는바 이보고를 전한도농회당국에서도 아연중대시하야전기한상한목의 부정사실을 지적하고 군산(群山)직사지소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기로되여 추이는 주목된다

"實로橫暴莫甚"
農會技手某氏談

별항보도한 정조부정검사에대하야 실지발각자인 충북도 농회기수모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금반나는 명령을바더 지난팔일부터 그지방의 공판상황을조사하기위하야 출장하엿(습)니다 이러하게도 악착한 부정검사를 감히 행하고잇슴줄은 생각지도 안햇습니다 정조공판제도는 생산자즉농민을 위함인데 도리어 농민에게 해를끼치게되엿습니다 참으로 이정조검사원은 너무나 횡포합니다 농회로서도 중대시하고잇는데 감독당국인 군산(群山)지소에 주의를 환기코저 지금협의중입니다 이러한검사원은 단연용징할 필요가잇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농민은 공판에대하아 도는 검사에잇서서의 상식이업슴으로 이러한 부정사실이 잇슬지라도 발견하지못하고잇는지 알수업지요 한심하다고도 할가요 일년동안 피땀을 흘려서 거두운농작물을 이러한 간배들의손에 아즉도 못하는동안에 속는농민이 얼마나 억울할지오」운운

學年延長運動
基金도萬六千圓 龍雲小學校에서

【洪原】홍원군용운소학교학년연장기성회(龍雲學校年延長期成會)에서는 다년간육년제승격(六年制昇格)을위하야 여러가지로 활동하여오든중 중추부의초등교육확충계획과 함께 다시기세를 어더 지난사월부터 일중맹활동을하야 오백호미만의십오개리에서 대금일만육천원(一萬六千圓)을 모집해노코 성의를보이는한편 수차당국에도 진정하엿든바 어느정도까지의 희망도잇서보여 전실목적관철을위하야 매진다고한다

江原道經濟警官 三十四名을任命

【春川】강원도의 경제경찰(經濟警察)도지난구월달 판제 개정으로 파아좋의 설치케되엿섯스나 그간직원이 정비되지못하고 잇던중 지난십오일부로 각서직원에게 임명되여 아르는계천임무를 개시하리라는바 판게직원은 전부산업자명으로도보안과(保安課)내 경제경찰계에 경부보 한사람과 기수의두명이며 중요지에는 두명이고 매계는 각각한명식이라한다

伐採違反百五十名

【安東】봉산군(鳳山郡)내에서는농내를 범행하여 각곳에서연료(燃料)로 소비하고잇는 송엽(松葉)장작등의 절부는 봉피가을(耆秋)일년에 무자비적 송엽(松葉)을 벌채하여 당하여가고잇는데 특별히 이번가을벌채기를다한 지금에 동선(洞仙)산수(山水)구연(龜淵)기천(岐川)덕재(德在)등 서간지대에서 산림령(山林令)위반자가 일백오십명이상에나달하엿다고하는데 불법범행사실은 위반자수의 훨씬이상이 전부 지농범(盜犯)이라고한이전에는 위반자의 대부분이무지한 농민이 부주의로 위반해위를하고잇섯는데 이번에는 종래에 예를버리고 정반대의 사실이 나타나고잇는 그원인을알어보면 금년도에는 종래에업시연료(燃料)의 부족으로 폭등으로 좋을 가볍하고 엿스므로 어떤기회에는 다소유리한 방책을 세우면 밧이단는것은 저각하고 수배원내지수천원에 지의산벌(山林)을 벌채하야노코 수입이만흔데 육내여노도 수지만 마침텐이아니라 일반윤리하여 정원으로 저벌률을 각오하고 사업을시작하는것이라하며 당국으로는 금년부터 연료난의타개로보아다소 범죄에대하여 특별한대책을하고잇슴에도 불고하고 범죄를단행한다면 단연용서업시 엄벌을할방침이라고한다

忠南棉花共販
六百五十萬斤突破

【忠南支社發】면화의왕국이라는 충남도(忠南道)금년도공동판매(共販實)는 지난십오일 현재로 육백오십만근을 돌파하엿는데 그에따한 금액은 일백이십만원에달한다고한다

秋收期農村憂鬱
督促命令狀이亂飛 大邱法院管內二千餘件突破

【慶北支社發】농민들이 일년간 피땀흘려 거둔 추수기(秋收期)를 유한대명의(?)를노리고 치위가오기전에 추수를밧비하여노코 안도의한숨을쉬이도록시 채권자들의 지불명령장이 난비하야 다시 「수확기의고민」을 노키고잇다 한다 어떠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 나타난수자를 조사해보면 금년사월이후 독촉명령이 사백오십삼건 강제집행이백구십륙건에 달하다고한다 더욱 월별로본다면 추수기가 닥처올사록그수자가불어오는것이 현저하다고하며 전년도에비하야다소감소된것은 거년도의도내일대의대풍으로 탐미아마 채무관계가 청산된건수가 만엇든까닭이라고한다

	督促命令	假差押	强制執行
	件	件	件
四月	一五七	五〇	二八
五月	一七五	六四	二四
六月	一七八	五九	一三
七月	一五三	六四	三八
八月	三一六	五四	三三
九月	四二四	六八	三五
十月	四五五	九四	一六
計	二、二五八	四五三	一九六
(去年分)	三、七九	四〇〇	三三〇

支拂督促命令二個月間 金組가一七九件 無盡 二六件

이와가티 추수기를당하야 지불명령장이 난비한다는바이 채권자측은 ... 금융조합만얻기를 기원하고잇다

二萬圓의全財産 育英事業에提供
順川金建信女史美擧

【平南支社發】사립교육계가 감격의손을들어 마지하는 기특한 할머니 또한분—순천읍(順川邑) 사는 순천장로교회 권사(勸事)김건신(金建信)(*)여사는 십오일 동읍사립의영학교(義英學校)에대하야 전재산 일만구천육백여평 시가약이만원가치의토지를 자진기부하엿다 여사는본시가난한집에 시집을와서 사십여세때에 홀몸이되엿스나 자녀를양육하는일방 꾸준히 근검저축을하여 순전히 여자의 섬수근로서 이만한재산을모앗는바 이제는 사람들도 모두 당당하성가를하엿스니 『돈은빌에 이재산을 돗기픈 교육사업이외에 어데다쓰랴?』하는 장한마음으로 재산일체를 앗김업시 교육사업에 내더진것이라한다

기부를바든 의영학교는 장로교계의 사년제소학교로 삼십년전에 설립되여 오백여명의 일꾼을내노은 역사기픈학교로 어제못하지안은 이대금을어더 열충내용을충실히하여 건전한육성을 도모하고저 감격과감사가운데 발전책을 연구중에잇다고한다 그리고 더욱 특기할사실은 여사의 장녀되는 김병호(金秉鎬)씨도 벌서고령이나 사재를 내던저 일즉부터 동읍의정용유치원(貞容幼稚園)을설립하고 꾸준히 경영을하여오고잇스니 인근에서는『사회사업의집안』이라하여 모두우러러보고잇다고한다 (사진은 김여사)

怪青年檢擧取調

【鎭南浦】진남포경찰서사법계에서는 김사법수입이 목하괴청년두명을검거한후 준엄한 취조를 계속하고 잇는바 전기두명의괴청년은 부내각소에서 십여건에절도행각을하든자로 부근모경찰서 관내에서발생하엿든 모중대사건의 범인인것이 판명되엿스며 여론자두명까지 여타방면에 잠재하여잇는것까지 알게된남포서에서는공범자를 검거하기위하여 형사대가 급거출장중이다

美術手藝展覽會

【退潮】기보한바와가티 지난십일부터 십오일간 일본문화자수전수학원강사(日本文化刺繡專修學院講師) 강통남(姜通男)선생을 초빙하야 수예강습회(手藝講習會)를 개최한바 회원은 삼십여명에 달하고 금번수예강습의 파로문은 자수세공(刺繡細工)수십총의 종류를 교수하야 ... 하오바 퇴조에 잇서서는 이처럼 평정한 예술강습회는 처음으로된만큼 크게 일반에게 현대예술의 가치를 발휘하엿고금번 강습회의 주최한 퇴조지국(退潮支局)에서는 강통남(姜通男)선생에게 대하야 감사를드리는바라고한다

高射機關銃獻納

【信川】지난오월일 양일간신천예기조합(信川藝妓組合)오전예기조합(源泉藝妓組合)주최각신문지국후원으로시국애국연정대회를개최하여 만흔관객이 입장하엿든데 시국이시국인만침 애국예기성극만을 비용를제한 금일천사백칠원팔십사전을 경찰서에기탁하여 고사기관총(高射機關銃)을 헌납하엿다고한다

冤罪의强盜事件
一名에게만補償 一日五十錢의比例로支給

【平南支社發】에매한사람이 뜻기만하여도 무시무시한 강도죄를뒤집어쓰고 복역중에 진범인이나타나 재심결과 무죄로 청천백일하에나서 당시큰이야기거리로되엿든 平北碧潼郡雲時面雲中洞一二三 曹鳳瓜(二七) 同 張輔珍(二八) 同 金龍洙(二八) 同 姜夢翰(二七) 등은 즉시 구류시간과 복역한날수를 통산한 오백팔십이일에대하야 일일 이원식 한사람이 일천백유십사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하엿섯는데 조창봉, 장외진, 강봉히등삼명은 거지사백을하여 검사로하여금 지변인으로 오신케하엿다고하야 청구를기각하고 자초지종을 부인하여온 김농수에게 만 일일오십전식 이백구십일원을 십오일평양법원에서 지불하엿다한다

遭難蘇聯漁船
天草丸이救助

【咸北支社發】북해도 소준(北海道小樽)으로부터 나진(羅津)에 향하야 항해중의 북일본기선(北日本汽船)의 천초환(天草丸)은 십사일오전십시 『아메리카』만근해에서 조난중의소련(蘇聯)어선을구조하야 동선파가티 나진항(羅津港)으로이항한다는것을 동일오전중 청진무전국(無電局)에 통지하얏다는바 상세한것은 아직모르나 전기소련어선에는 오명의승무원이잇다고한다

鰮漁獲一進一退
原因은風浪關係인듯

【咸北支社發】지난팔월부터십일월까지 세수라(西水羅)근해에서 잡히는 정어리는 이십사가량되엿는데 아즉까지 예년보다 어획이 적다 ... 나가던 정어리는 최근에 이르러 고기잡이에 조금도 어획을 보지못하게되여 다시금 업자의간담을 서늘하게하더니 십삼일은 익기고요한데다가 정어리떼는 서천진(西津)근해에 남하하얏스므로 어획선이 대단하야 이날하루동안 실수만여통의 어획을보게되엿스나 이후의 풍파가 격심하야지꼰하야 자연 날 대단조업기후가 래임될 안간 일만여통의 어획을보게되엿다 는 어업자의 체험이 업는 ... 날 대단한기후가 래임될 안간 일진일퇴하는 상태에잇게된다고하며 업자는 오직

中和된"桑煙"相剋
平南道,專賣局間協定

【平南支社發】농가현금수입에큰영향이잇는 뽕과담배는 인접하여심으면 뽕의피해가 막대하여 오래전부터 상극이심하던바 이제야해결을지엇다 평양지방전매국관내연초경작지 확장계획와차착지천되어 평안남도뿐만 금년도에 약이천정보에 달하엿고금후입중확장할 예정인바 이확장구역(개척지)은 전부 양잠지대와 중일한지대로 도망의잠지장려계획에의한상전(桑田)확장공작과의 마찰은 피할수업는 사실로 되여잇섯는데 도당국과 전매지국이 누차협한결과 얼마전 웅파가튼 협정이 성립되엿다 이러한협정은 전조선 초유의일로 동일한곤난을 경험하고잇는 각도의 한전례가될것으로주목된다

◇協定內容

一、桑園及煙草耕作은 副業의本旨에基하여 一般農業勞力의均衡을 考慮하야 適正的으로 行하게할것

二、煙草耕作地와 桑田과의 距離는 集團된桑田에 잇서서는 凡五十間以上으로하고 其他桑園에 잇서서도 濟常수 잇는 耕地가잇는 境遇에는 이것에 準할것

三、새로 煙草耕作部落을 設定하려는 境遇에는 蠶業에 ... 被害가 업는 場所를 選定할것

四、이미 蠶業이盛한 部落에煙草耕作을 實施하고잇는것은 그 被害를 輕減하기爲하여 桑田에近接하지안흔 場所에서 栽培할것

五、煙草耕作은 輪作을必要로하는 關係上 煙草耕作地帶에 桑田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可及的 既設桑田附近 又는一定한地域에 集團케할것

六、新地帶에 煙草耕作을 하려는 境遇에는 專賣局은 道와 相互協議를하고 耕作豫定地에 關하여는 專賣局은 반드시郡과協定을하여 兩産業의 圓滿한 發達을 互助할것을 協定함

玉溪에初氷

【玉溪】옥게(玉溪)의 가을는 사오일전부터갑짜기 칩기시작하야 지난십일밤에는 서북풍이 심히불며 별안

照明彈

함남의회도회에서는 각의원이 여즐일구로 수해에대한 당국의책임을 통론

◇

처는 비가만히쏘다진데 섯을모르는바아니나 이위치!! 비가 소홀하였다는것이 논점

◇

더욱히 득수사업 즉수전사업등에서 일부책임은 저야겟다는 논견은 주목할점

◇

당국에서도 형식적인 「시충고려」에만 끄처서는 아니될문제 (咸興)

退潮
第一回 美術手藝展覽會

▲時日 十一月十七日

▲場所 海匝旅館上層

◇主催 朝鮮日報社退潮支局

長篇小說 林巨正【176】
洪碧初 作 金熊超 畵

평산쌈 (十七)

리춘동이가 꺽정이게서 정신때 술대접을 밧고 여러두령과 파 가치당회하는중에 해가 어느듯 저물때 다되여서 하나를 자리에서 일어서기시작할때 꺽정이하 여러두령들을 돌라보며 내일은 일직 떠나가게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특히 꺽정이를 보고 평생에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다가 이번에 와서 원을 일우고가노란 뜻을 말하는데 꺽정이가 말을 다못하게 가로막고

「오늘까지는 산이게서 묵구 내일부터는 내게와서 며칠동안 묵다가 가우」

하고 만류하얏다

「산이게서나 뉘게서나 이산안에서 묵으면 다 대장대에서 묵는셈인데 따루 내게와서 묵오라시니 그게 웬말슴이오」

「서림두 각각이라우 내일부터는 내가 동향친구를 대접해야겟소」

「어제밤 오늘낫 술대접에 동향친구가 만이 호강한소」

「어제오늘 술찌낸건 내동무의 친구 대접이지 내친구 대접은 아니요」

「편곡하신뜻은 감사하나 집에서 꼿 올줄 알구 기다리테니까 내일 가야겟소」

「못가우 내가 돼보내지안켓소」

「집에가서 볼일이 잇스니 이번은 놔주시우 이담에 다시 와서 동향친구 대접을 실컨 바드리다」

「볼일잇는사람이 오긴 왜 왓소」

「피게가아니요 산이는 알지만 우리어머니 한갑이 이달인데 미비한것이 만허서 가봐야겟소」

「한갑잔치의 미비한것은 내가 준비해줄테니 염려마우」

「아니요 내가 집에를 가서 준비할일이 만소」

「한갑날이 어느날이요」

「스무여샛날이요」

「이십여일을 두구 준비할일이 무어요 내가 심사 틀리면 한갑날두 못가게 붓들어 둘테니 공연이 여러말 마우」

꺽정이 말에 놀려서 리춘동이는 깜딱말을 더 세우지못하얏다

리춘동이가 꺽정이에게 붓들려서 복눈중에 여러두령과 서로 너나드리를까지하게되고 또 청석골안을 돌아다니며 구경도하게되엇다 리춘동이가 황천왕동이를 압장세우고 뒷산넘어 픽오주의집을 구경하러갈때 김산이더러도 가치 가자고하는것을 김산이는 리춘동이 업는 틈에 입당시킬 의론을하라고 따리가지아니하얏다 지산이가 꺽정이를 보러오니 팔씨정어 서림이가 꺽정이여에 안저잇서서 말을 할까말까 망서리다가 마침내

「춘동이더러 입당하라구 권해보오리까」

하고 꺽정이의 의향을 물어보앗다 꺽정이가 지산이의말을

「그래봐라」

하고 간단하게 대답한뒤 서림이를 돌아보며

「서종사 보기엔 춘동이가 사람이 엇떼드까」

하고 뭇는데 처음에 공연히 의심하든 서림이도

「사람이 너무충 고지식한것이 병통이나 줄직한것만은 가취할점이 잇겟습디다」

하고 대답하는것이 리춘동이의 사람은 의심할나위가 업는 모양이엇다

이날밤 여러두령이 꺽정이사랑에 모여서 이야기를하는중에 박러동이의 처신하는것이 이야기거리가 되엇는데 서림이는 명칠노시(明哲保身)이라고 칭찬하다가 꺽정이가 호기업는 놈은 이의 일이라고 타박하는바람에 그러라고도할수잇다고 우물우물 자기의말을 거두어치웟다 박러종이 이야기끄테 꺽정이가 리춘동이를 보고

「자네가 연종이 노인의 부하노릇을 안할뭇만하구 내부하노릇두 좀해보겐」

하고 입당을 권하니 리춘동이는 우스면서

「나는 팔짜가 남의 부하노릇만할사람인가」

하고 실여스말을 한마디한뒤 꼿 정중한말로

「내가 소시적에 어머니 말을 안들어서 어머니 속을 무척 썩여드렷소 그래 서울서 평산으루 뫼서올때 이후는 말을 잘듯겟다구 어머니아페서 맹세를햇섯소 바대정하구 가치살지안쿠 마산니루데루어사 온것두 어머니 말을 쫏가한게요 악가 저녁때 산에가 나더러 이번에 입당하구가라구 졸르는데 내가 어머니 허락을 바든뒤에 다시와서 입당하마구 대답햇소 지금 대장께두 그밧게 더 대답할말이 업소」

하고 사정을 깁게 느러노앗다 리춘동이가 다른두령들과는 맛하게놀하되 꺽정이게만은 기껏하야 반말이요 그러치안흐면 하우를하얏다 여러두령이 떠밧드는사람을 하게하기가 거북도하거니와 그보다도 꺽정이의 기안에 놀려서 하게가 잘나오지안흔것이다

冷性에!

004115

이것은 카로리ー 노픈滋養酒ー體內의끄린물이라고나 할른지요 잡수면五體ㅡ속에서 보더후끈후끈더워저서추이도어더로간지모르게씩안욱하고快適한氣分이됩니다 또한그우에血液循環을조케하는作用도잇서서血液을豐富케하는鐵分까지도가지고잇스며 또 身體를急速히元氣나게하는葡萄糖이라는榮養素도가지고잇습니다 冷性、貧血로元氣가업는분에게다시업는飮料입니다

六十醫學博士御推奬 純良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ー도와인)

かぜねつにキ、メ確かな アンチピリン丸 (蛇印)

朝鮮信託

貸出業務案內

不動産擔保貸付

有價證券擔保貸付

年賦、定期償付を低利迅速に御取扱致します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

支店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咸興

營業案內贈呈

きれいる

淋巴腺結核(クキグビ)の注射代用

評判이ン는!!内服療術劑 ワカ山의「るいれき專門藥」 副作用업고、氣分로조시원하게되여서 기뻐한다

和歌山市 るいれき專門藥院

※新人短篇集大發賣中※

武田發賣品

初老期의强精

四、五十歲前後의精力減退、記憶力의衰弱、氣力의衰弱、精力의低下等의 症狀을 防止하야 活力을 充實케합니다

壯年期의 生殖機能減退 ... 男性的特徵을 發揮치못하는경우에 使用하야 優秀한治療的効果를收得합니다

男性ホルモン エナルモン (에나루몬)

錠劑 二〇錠(二圓五〇) 五〇錠(六圓五〇) 一〇〇錠(一一圓) 注射 〇・五cc 五管 一〇管 三〇管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製造元 株式會社 武田研究所 川崎市大宮町

經濟鮮說

特殊「링크」制 ①

綜合링크案은流産

戰時下 輸出貿易振興의 妙策으로서 商工省이 非常한 熱意를가지고 計劃을樹立하였든 「링크」案은 其主要點인 (一) 輸入權을 平리미암及 輸入比率 (二) 物動計劃과의 調和件 (三) 國內物價에對한影響 (四) 法的根據를 何處에두는가 (五) 貿易「링크」 (六) 大貿易商의 利潤獨占의 念願等의 問題로 大藏省이 強硬한 反對를 表明하였다。 商工省은 相當한 自信을가지고 立案한것이므로 이에 對立 大藏省의 意見이 對立되어 當初부터 前途에 暗影을 投하게되었다。 此間에잇서 池田藏商相은 綜合「링크」案을 實施하고십다는 意向을가지고 商工省案을 支持應援하얏스나 綜合링크案을 廻繞한 商工、大藏兩省의 論爭은 相當히 激烈化하여젓스므로 그形勢를 念慮한 池田藏商相은 兩省關係首腦部를 招致하야 妥協點을 發見하고 一擧에 同案成立에 對한 最後的斷案을 내릴豫定이엇다。 그러나 商工省은 그만큼 熱意를가지고 잇든 綜合링크案을 放棄하지안코 그만두고말엇다。 그것은 商工省으로서는 大藏省의 強硬反對에 對抗하야 抗爭한다하여도 對立感情이 이만 惡化되어서는 結局 實現을 바랄수업다고 斷念한 關係도 잇겟스나 도 輸入獨占 平리미암의 「卜」에 外務省의 駐外方面으로부터의 反對가 甚하야서 事態가 複雜하게된것도 商工省의 退陣決意의 한가지 契機로된것이 分明하다。

이리하야 綜合「링크」案은 드디어 流産되고 말엇는데 商工省은 綜合「링크」案放棄와 同時에 그代案으로서 特殊「링크」案을 案出하엿다。 그런데 特殊「링크」案의 內容을 簡單히 하면 綜合「링크」案의 一部分이라고 하기는하나 現行商品別「링크」制와 何等다른것이 업고 單只 商品別「링크」制가 一般的으로는 法制的 兵을 가지고잇지안는데 對하야 特殊「링크」制는 이것을 通則的으로 法制化하엿다는데에 特色이잇슬 뿐이다 特殊「링크」制는 輸出原料의 輸入權限에 重點을 두고잇서 其意味에서 一部의 商品別「링크」制의 實效如何가 問題되고잇는 現今 輸出貿易振興方策으로써 商品別「링크」制를 強化補足하는 役割이 잇고 또 그것이 特殊「링크」制에 期待되는 所以이다 即 現在實施되고잇는 商品別「링크」制品目及 生絲等의 例外品目(國品目)等을 除外한 品目에 對하야 輸出品의 包含하는 原料의 比率에 應하야 原料의 輸入을 認定하는것이니 따라서 輸出을 만히할수록 輸入原材料가 그만큼 손에드러오게되어 輸出用原材料의 輸入權限이 擴大되는 것이다。 左에 特殊「링크」案의 骨子를 列擧하여보면

一、物資를 輸出하면 其輸出金額의 一定比率에 應하야 當該輸出業者의 原料輸入을 認定하는것을 그主要點으로함

一、物資를 輸出하야 當該原料의 輸入을 하려는때에는 工業者가 直接 輸出하는가 또는 輸出商과 契約證明書를 作成하야 輸出함을 要하고 또 地方長官의 輸出證明書及輸出證明書를 添附하야 當該原料輸入證明書를 交付하야 輸入許可를 申請함이 必要하다 地方長官에 輸出證明書下附를 申請할 때에는 地方長官에 對하야 從來의 其他輸出證明關係資料를 提出할것

一、商工、大藏兩當局은 右의 輸入이 當事者自動的으로 許可함

一、本「링크」制에잇서서는 如左한것을 除外함 (가) 關東州、滿洲國及 支那에 對한 輸出入、(나) 商品別「링크」의 輸出 (다) 生絲等의 輸出

一、商工省은 物資의 輸出金額에 對하야 原料輸入額을 決定하고 地方長官이 이것을 輸出證明書作成의 基準으로하게함

一、輸出하야서 得한 輸入原料에 對하야는 工業者가 加工한後輸出함을 要함 아니하면 內地需入原料 確保의 길이 斷絕되므로 內地需入은 事實上업다

一、本「링크」는 商工、大藏兩省令에 依하야 施行하는 輸出入臨時措置法도는 基準法으로하나 大藏省의 意見如何에依하야는 省令에依하야 施行치안코 兩省告示에依하야 施行하기로함 —계속—

廣汎한纖維品에 最高價格을指定

十日現在以上價格販賣不許

販賣價格取締規則追加告示

物價委員會에서는 지난十一日 纖維品六十數品에對하야 最高販賣價格을 答申하엿는데 總督府에서는 明十七日付 告示로써 朝鮮物品販賣第一條에依하야 如左히 物品及 年月日을 追加指定하고 左記物品은 十一月十日現在의 價格以上으로 販賣함을 不許하기로되엿다 今回指定物品은 廣汎한 纖維品을 網羅하야 物價委員會 答申品目以外의 纖維製品에 全般的으로 法的抑制를 加하기로되엿다 또 物價委員會答申最高價格은 各道에서 地方的事情을 考慮하야 公定價格으로서 指定될터이다

一、綿、『스·파』、羊毛、山羊毛또는 駱駝毛 原料로하야製造한 綿絲及人造絲 昭和十三年十一月十日

二、前項에揭示한 物品을原料로하야製造한織物(컬러를包含)及 메리야스 昭和十三年十一月十日

三、前二項에揭示한物品을原料로하야製造한 紐、綱、網、布帛製品、衣類及衣類附屬品 昭和十三年十一月十日

四、製綿 昭和十三年十一月十日

增資株不公募

村上朝運社長 談

朝鮮運送社長 村上義一氏는十五日午後零時五十分 汝矣島着 入京하엿는데 如左히말한다 今次의 要務는 朝運의 增資配當人事等의 問題에 關하야 鐵道局其他와 協議를하는것이다 取締役은 今回三名이 辭任하엿스므로 補缺選擧를 하여야하겟는데 二三名 補充하고 何處에서人選할는지 至今말할수업다 그러나自己의 持論으로서 社員重役及社外重役은 半數半數로하는것이理想이라고 생각하고잇다 增資는 主로 自動車事業의 統制擴充을 目的으로 하는것인데 前回朝鮮에왓슬때에 當局에 請願한것으로 增資株는 公募는하지안코 舊株主에게 新株를 配當하고 殘餘는 日本通運이 가지게될것이다 朝鮮內의 『트럭』의 統制는 着着進捗되고잇는데 將來自動車事業을 朝運과 分離할는지는 總督府의 方針에 依하야決定할터이다 朝鮮內의 트럭은 全部二百萬圓이 必要한데 將來는設備資金其他로 一百萬圓이必要하다

京仁間適當地點에 二百萬坪買收

高周波三期計畫工場地

日本高周波重工業의 第三期增産計劃은 過般來關係方面과 協議한後 有賀社長을 中心으로慎重研究中이던바 第三期計劃의工場地는 漢江水電計劃과照合하야 京仁間의 適當한地點을 選定하고同線에二百萬坪을 買收하기로決定 京畿道의斡旋에 依하기로 되엿다한다

營의 合理化에 努力을 集中하기로 되엿다

朝鮮의發明振興

方策을懸賞으로論文募集

帝國發明協會朝鮮支部에서는 十四日 理事會를開催하고 過般開催한 朝鮮發明獎勵展覽會의 經過報告하엿는데 今回左記에依하야 懸賞論文의 募集을하기로決定하엿다

一、題 朝鮮에서의 發明振興의 方策如何

一、마감 一月十五日

一、發表 二月五日

一、賞金 一等一篇 三百圓 二等二篇 各百圓 三等三篇 各五十圓

中央線開通 朝運擴充

營業網을強化

朝鮮運送에서는 中央線의開通에備하야 同線沿線의 營業網을擴充強化하려고 準備中인데 大體同線의開通과同時에 永川、安東(旣設)榮州(旣設) 堤川、原州義城에直轄店을두고 其他驛에는 代行營業所를 設置할方針으로 一部는 來年一月開通과同時에 開店할準備를 進行하고잇다한다

要할것이다

朝運重役陣改造

朝鮮運送의 增資에依한 重役陣改造는 運合의 立役者 竹井

簡保契約

三億二千萬圓

朝鮮簡易生命保險 十一月十日現在契約總數는 百七十二萬九千二百件으로 이것을 內鮮人別로보면 內地人 三十九萬五千百件 朝鮮人 百三十三萬四千百件 그他人口千人當 契約件數는 內地人六百二十七件六 朝鮮人六十一件五로되엇다 또右에對한 契約保險金額은 內地人八千七百二十八萬圓 朝鮮人二億三千二百九十九萬圓 合計三億二千二十七萬圓으로 保險契約一件 平均은 內地人二百二十圓九十一錢 朝鮮人七十四圓六十四錢이라한다

漢銀臨時總會

漢城銀行에서는 來十一月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本店에서 臨時株主總會를開催하고 次의事項을附議하기로 되엿다한다

一、代表取締役一名選任의件

二、黃海道兼二浦에支店設置의件

三、元取締役林茂樹氏에慰勞金贈呈의件

또 野田新頭取가代表取締役에選出될豫定이라고

漢江水電重役陣

創立準備中의 漢江水電은 來年二月에 創立될豫定인데 現在까지에 內定된 同社의 陣容은 大體如左하다

取締役社長 有賀光豊

專務取締役 林茂樹

常務取締役 金谷要作

同 本間孝義

取締役 谷多喜磨

同 牛島省三

監查役 荒井初太郎

次期硫安建値 据置를內定

生產費는四錢高

【東京】明年一月以降 七月에至하는 次期硫安公定價格에 對하야 協議할 硫安肥料製造業組合緊急理事會는 지난十日 帝國호텔에서 開催하엿는데 動員會社에서 提出한 七月以後부터 九月까지의 三個月間의 生產原價調查資料를 基準으로하야 審議한結果 生產原價는 石炭、船車運賃의 引上으로 因하야 現行公定價格決定時의 六月에 比하야 十貫入叺를 四十錢假量 引上하엿는데 次期公定價格도 不可不引上치 안흐면 안되게되엿다 萬若 價格引上이 不可能한때에는 原料價格抑制에 對하야 政府의 協力을 求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어 今後의 善後措置를 森理事長에 一任하얏스므로 同理事長은 直時 農林省을訪問하고 여러가지로 協議하엿는데 現行公定價格十貫入叺를 三圓七十三錢으로 据置하기로 決定된 模樣으로 二十八日의 理事會에 諮問한後 다시總會에 附議決定하야 正式으로 政府에 申請할 模樣이다 그러므로 原料價格의 抑制에 對해서는 農林省의 斡旋으로 가마니의 共同購入案이 決定되고 또 運賃의 共同計算案이 具體化할 模樣이어서 今後의 硫安界는 生產費引下와經

買戾條件附『金』買上

日銀에서無期限延長

【東京電話同盟】日銀의 買戾條件附買上은 銃後國民의 愛國心이 이마음까지에 合計十三萬二千個가持參되고 아직今後도 繼續應募를 反映하야 續續持參되어 最初할모양이므로 期間을限하지안코 七月十五日부터 一個月間의 買上期는 其後다시延長되어 十四日延期의 期間을 終了하엿는데 當分間受付를 延期한다는旨를 十五日에發表하엿다

新物價動員計畫

新事態에適應해補正強化

企劃院에서急速成案中

【東京】池田藏商相은 當初부터 商工省機構를 急速히 改革하기로하고 商工省全體로하여금 『戰時經濟參謀本部』로서의 役割을 하기에 遺憾이업도록 萬般으로 整備하고 重要物資의 生產配給과 消費及物價抑制에 關한 現行諸統制法令과 其他의方策을 一新하기로 方針을 정하고 新事態에 適應할수잇도록 漸次로 補正強化시키고저하고잇다 이리하야 武漢攻略以後에 잇서서의 施策을 近間企劃院에서樹立하게되어 來年一月以後부터 三月까지의 新物資動員計畫에 基準하야 實行될것임으로 이新計畫의 樹立이야말로 刻下의急務로되어잇스므로 企劃院에서는 目下陸海軍 商工 大藏等의 關係各省과 密接한連絡을 取하고 其成案을 急히하고잇다한다 또物資動員計畫은 當然히 第一次計畫을 引繼하는것이나 今後에도

一、治安維持工作의遂行 即現地駐兵의 殘敵掃蕩에 必要한相當한多量의 軍需資材의 充當

二、新支那建設에 必要한 復興資源을 主眼으로 各種生產材及消費材의 補給

三、日、滿、支一體의 生產力擴充計畫遂行에 必要한各種資材

等을 絕對로 必要로 함으로 現在에 消費되고잇는 軍需資材와 其他重要物資의 數量以上을 要하게된다 따러서 現行의 經濟統制緩和는 到底히 不可能한일이며 오히려 一層合理的으로強化될것으로 보인다

京畿農會主催 乳牛品評會

京畿道農會主催의 乳牛品評會는 十七、十八日二日間에 亘하야 東大門外家畜市場에서 開催되는데 出品總數는 六十六頭成牛는二十四頭 計九十頭에 達하야 全朝鮮最初의 品評會로서 其成果에 多大한 期待를가지고잇다 또審查의結果 十八日午後二時부터 褒賞授與式 午後四時부터 朝鮮호텔에서 乳牛獎勵의 座談會를開催할 豫定이라한다

○櫻井小一氏 金曜專務로就任=櫻井小一氏는 同社監查役을 辭任하고 專務로 昇格키로 內定되엿다 來廿五日 定時總會에서正式選任 되리라고

倫敦金塊爆發

一擧에一志七片高

今朝入電에 依하면 倫敦金塊市勢는 買氣旺盛으로 一擧에一志七片高로 爆發되여 七磅八志三片으로서 지난九月二十九日의 新高價를 一志三片이나 上廻하야 一九三五年以來의 新高價로 更新되엿다 換算一匁은十五圓三十二錢一毛로 前日에比하야十六錢三厘六毛高이엇다

日本海航路統制

評價三千八百萬圓

朝郵는四百萬圓出資!

日滿經濟의確立과 滿洲移民計畫의 遂行에 資하기爲하야 計畫中인 日本海의 航路統制에 依한 日本汽船會社設立에對하야는 이미 日滿兩國의 關係方面의協議를 終了하고 近近創立될豫定인데 航路統制와 朝郵와의關係는 過般 黑田海運課長과 廣瀨朝郵專務가 滿洲關係方面과折衝한結果 大體大綱을 決定하고 다시遞信省方面과 協議한後 最後的決定을할터이다 그리고 右航路統制의對象으로되는것은北朝鮮新潟、北朝鮮敦賀兩線을擴充強化하야 日滿間의最短『루-트』로하려는것인데 現在까지에 決定된바에依하면 右現存關係航路는

一、雄基 羅津 淸津 城津 元山 新潟 淸津航路

二、雄基 羅津 淸津 城津 元山 敦賀 舞鶴 宮津 境 山 城津 淸津線

이상이며 이 新潟羅津線을三千萬圓 敦賀淸津線을 八百萬圓 合計三千八百萬圓으로 評價하고 이것을資本金額으로 하기로되어잇고 出資關係는 日本과 滿洲、朝鮮이 各各 一千九百萬圓의 評價出資를 할것으로 보이어 朝鮮郵船으로서는 此中 四百萬圓을 出資하기로 되엿다 또 朝郵의左記二線은 一로『갈』線으로서이航路統制에서 除外될모양이라한다

村尾洪三氏가 引退하고 後任으로서 社外의 財界巨物인

植田守衛氏(朝鮮總務) 朴榮喆氏(商銀頭取) 村上社長이 三氏로 內定되어 入京中의 村上社長이 折衝하엿다한다

新潟航路에

朝郵二隻出資

日本海汽船會社는 朝鮮、大連도 正式으로決定하고 結局北朝鮮比率로서는 參加各社의出資의配定比率인데 目下東京에서 北日本、日本海、朝鮮郵船間에서折衝中인바 朝鮮郵船關係로는 大體如左히豫定되고잇다

一、主要航路인 敦賀、北鮮航路에는 直接現物을 出資하지안코

一、新潟航路에對하야는 現就航의四千돈級二隻程度를 現物出資하게된다

그리고 이內容에對하야는 森朝郵社長이 交涉中인데 朝郵로서는 可及的現物出資를 避하고 십흔 意向이라한다

今日의市勢 (十六日)

株式 波瀾重疊 急騰

前場波瀾 今朝는 昨後場의低落의 뒤를이어 東新一圓二低인一三〇圓丁 鐘紡一圓一低인一回一圓一에 纖落寄付後 東新關門을割인 一二九圓九를 示現 後 急速反發되어 東新一三四圓五 鐘紡一四四圓九에 高價大引

後場昂騰 後場은 東新一低인 百三十四圓四、鐘紡不變調인 百四十四圓九로寄付後 石器疑說이流布되여 昂高이엇다

再突込後急返

平時로는底入形

今朝寄付는 又復朔落을 演하야 當地東新은 一三〇圓、大阪은 一三〇圓丁割의 一二九圓七이엇드니 其後急反撥되어 諸株一齊高價로 大引되엇는데 目前總動員法 第十一條 自內航行、米國의門戶開放要求等 諸問題가 輻輳되고잇는 如何한 此等問題가 今後確한豫斷을 할수업는터이므로 이에對한 解釋이 區區하야 惹起되고잇는것으로보이는데 지난九日에 總動員法 第十一條問題가 表面化된以來로 若干의戾는잇섯스나 其反撥도結局은 朔落이 急激하엿는反動、東新의逆日步、賣方의利喰急等에 因한데 지나지못하야 根底에는 何等의 積極性이업는것으로보이므로 市勢가徹底히갈곳까지간뒤가아니면 그의本格的再起는 難望인 形勢이니만큼大勢的轉은 아직時期가早로보히므로 前週末에나 今前場의底入形도그리 미듭직하다할 수업는바果如何

安定은尙遠?

惡質의漸崩이나

總動員法第十一條發動에 多威되어 急落潮에는市勢는 其後第十一條가結局 發動을보게된다하여도 生產力擴充을 全然

國債反撥

【東京電話同盟】情勢는 何等變化가업슬것으로보아고 五分利價의借替公債도 漸次擴張하여졋스므로 買氣를助長하고 一面總動員法第十一條問題에 胚胎하야 資繁하는側도잇섯스나 甲號一回五分도十五錢昂騰되어 一兩日來의低價에서 벌써五、六十錢反撥되엇다 四分半도 이에따라 十錢高를 告하고 外價도 佛貨五錢昂高 米貨도六分半五十錢反戾되엇다 甲號五分一〇三六〇 一回四分一〇二九〇 二回四分一〇二九

市場八感

(株)……前週末에大崩後急轉反撥되어 底入形을 보이더니今前場에도東新百三十圓을割現하고는 急反撥▲平時의市勢라면 底入을 思케하는것이나 戰時—經濟界變革에 이것이適用될지 疑問百%▲모를적이 예前생각은 消費할때?▲大勢逆轉을 挽回할만한材料가업는것을 깨다려야할관▲如何든 暗中模索이 繼續되는限 波瀾은도지안홀것▲十一條도

(米)……今朝는또翻風이更作하야 바로 天井不知의氣勢를보이고잇다▲그러나 當中兩限은 伸惱의觀이업지아니한데 先限에買物이歷嶮하야 前日의高價를上廻할形勢▲人氣로보아서는 三十四圓臺를 無難히깨트릴것가튼데 容易치 못한모양▲何如間買上市勢는一巡하嗣이不無한즉 此에서低落을告하지안는다하면 彌保合으로 終始할모양▲伸惱하는 地市勢가 二十錢臺를跳返、先限高를示하면 當地는比較的伸惱狀態

京城 進學堂 ドーボレ 證券取引店 內案業營 東明

買上價格注目

今回發表된 政府米百萬石買客 觀測이 朝鮮米界에 至大한影響을주어 昨後場에도 三圓九十二錢까지의 百丁反撥을示하고 中限은九十丁의反高를 示하엿스며 先限은約六十丁의 反騰으로 內地米價는 그다지 影響을受하지안홈에 反하야 朝鮮單獨의 高價를演하고잇다 實로買方의 戰略은 그內容에 依하면 當限은 資米化하는關係上 正米의昂騰과 相俟하야 反騰하엿다하려니와 中限은 十二月二十日에納會하는만치 受米한後 二十六日에足이買上에 應募할수잇다는자못 機敏한策動으로 買占不意의 勢는光索이다 그러데 現中限의市勢는 三十三圓七十錢臺의 高價임으로 最高公定價格과의 差額

期米 突高後에伸惱

前場突高 今朝阪地先限은三十六圓十二錢인二丁高을 接하고當限은三圓七十九錢인二丁低로先限은三十三圓四十錢인二丁高로 寄付한後 十錢까지小阪地二節十四錢으로 二十四錢의 突騰하엿다가九節二十錢의 八錢伴하야七、八節四十七、八錢으로 結局阪止二十四錢의 報道入하야 當二四圓〇九錢中은九十九錢先은 六十五錢에 保合止하엿다

後場一息 後場은 三十三圓六十六錢인 一丁高로 始場後二節六十七錢、四節六十四錢、五節六十錢이엇다

一息後에突高

今回政府米 百萬石買客은 朝鮮米中心이라는說이 濃厚하야正米도 相當히 反撥을 示하엿거니와 滿鮮市勢도 三期共히意外의 高價를 示하고나서 昨日은 買持勢力을 示하엿는데 그러나 當限引際의 觀을惹起하다가 今前場引際의 高價에서 買行될 疑問이 不無하다 그러고 正米界의 事情이 上의 正米가 移出한다하면 三十五圓以上으로 보다할것이라도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한 朝鮮米가 多數에 잇섯스며 政府의 買上도 此遂이 餘地가 不適의 嫌이 업지아니하야 稍稍米側其他 思惑側은 買付하지안코 垂手傍觀할것이다 그러므로 此邊에서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 告하지안코는 買手皆無狀態를 무릅할모양이오 一方 產地出廻는 漸次緊縮되어 一難의 賣廻는 如何히 配慮하고 잇는것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買方 當限・中限・先限 [illegible])

正米 消極態度 保合

京城不變

稍白側의手當一巡으로頭重하야 買上價格決定을 보기까지는 雙方이모두消極的態度이어서 市勢는不變이엇다 ㊦穀良三等三四、二〇 四等三三、四〇 一等白米一四、〇〇

仁川釘付

正租의出廻는날로 增加되나 精米側의手當一巡으로 買傍觀이여서 唱價는軟勢이나 玄米는定期側의 物色買가잇고 其他에는 買氣가업서 結局昨日同樣으로不變이엇다 ㊦穀良三等

群山軟調

依然內地入注의 指値低로 商談不振이며 新米出廻의漸增으로 所持側의賣氣濃厚成하는一方 移出側은 採算價가出現하기만苦待하고消極的이어서 地場小口側의 必需去來뿐으로氣配는 軟調를示하고 正租는品薄으로 二厘高이나 賣買가업서다 ◎銀坊主三等三三、七五 四等三三、六五 一等白米一三、九〇

木浦不勢

內地入注의可能性이稀薄한데 廻米는六輛으로 漸增되고잇다 所持側은 高價豫約物이잇스므로 低價에는 賣惜態度이나 小口淨動米로 氣配는十錢低이고 多少의去來가잇섯다 ㊦銀坊主三等三三、九〇 四等三三、七〇 一等白米一四、二〇

大邱不動

內地照會依然한 不振으로移出側이傍觀態度이나 政府의 買客發表로 一般으로賣方은 低價에는賣惜頑強하나 此邊은 割高이라고 實築가보이지안코 伸力이업고 市勢는 前日同樣으로不動이엇다 ㊦穀良三等三四、三〇 四等三四、一〇 一等白米一四、八五

釜山保合

實需注文이 低價에는 地에相當한刺戟을주어 出廻는 稍稍인데 賣物이업서서 人氣가 頑強하고 內地入注不振으로 移出側이低價이나 結局前價同樣인 四圓九十錢의高價를維持하엿다 ㊦穀良三等三四、九〇 四等三四、七〇 一等白米一四、八五

三四、二〇 四等三四、〇〇 ㊦一等白米一三、八五 ㊦一等白米一三、八〇

今日財界 (十六日)

◆米 (單位石)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米一石	[illegible]	[illegible]
白米百斤(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玄米(FAQ)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廿三年物九八五五

期米 株式 大 仁川 海岸町 京城 黃金町 マルダイ取引店

京城 仁川 益 益康 全益證券

株式

◆朝取短期◆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朝取・同新・大新・東新・新業・鐘紡・滿紡・新滿・拓新・朝新・石製・鐵日・鑛日 前・後)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賣方 買方

(朝新・大新・東新・新業・鐘紡・滿新 [illegible])

◆實定 代引 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寄付 大引 高價 低價 (大新・鐘紡・紡鐘・業滿・新東・鐘日・新東・日日・書日・帝人 前・後) [illegible]

◆東京現株◆ (朝紡・王子・鐘紡・郵船・同新・東新・東株・同新・日石 等)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東新・新大・運紡・紡滿・業滿 前・後) [illegible]

京城 證券部・米期 仁川 福 吉村取引店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期米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前引 後引 [illegible]

◆朝取期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米 東 期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長一九六一 二九六五

◆朝取期米賣買高◆ 當 取 朝高 帳入高 出來高 中 先 本期總計 合計 [illegible]

◆大邱期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群山期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木浦期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賣方 買方 賣買高 [illegible]

◆東京期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前引 後引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前引 後引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前引 後引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大阪 東京 福井 先當 前引 後引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當限 先限 現物D格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當限 先限 [illegible]

◆東京砂糖◆ 現物糖 實賣中値 (ST) [illegible]

海外經濟 (十五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正貨準備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發行高 正貨準備 保證準備 [illegible]

(倫敦・紐育・上海 市況 [illegible])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鰯油粕麥粉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對外爲替

◆金塊 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豆 豆粕 豆油 高粱 當限 先限 現物 [illegible]

京城物價 十六日

◆米 (一瓩、單位錢) 多賀 白米 一等 二等

◆本朝鮮部 (反、單位錢) [illegible]

◆交織部 [illegible]

◆毛絲 (封度、單位錢) [illegible]

◆滿洲燃炭類 (噸、單位錢) 撫順炭 [illegible]

◆內地炭 [illegible]

◆石油 (二函、新錢、單位錢) [illegible]

◆砂糖 (百斤、單位錢) [illegible]

◆一般叺 (一等六十瓩入) [illegible]

◆朝鮮炭 (噸) [illegible]

◆金物類 (單位錢) [illegible]

◆塗料 (單位錢) [illegible]

◆紙類 [illegible]